

행진

행정간행물

25090 - 33246 - 44 - 98008

www.airfor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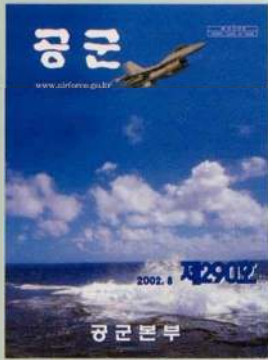


2002. 8

제290호

공군본부

2002. 8. 제290호 목차



www.airforce.go.kr

지휘봉		3
공군은 지금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7
칼럼	대~한민국, 문화적 공동체를 향하여	8
기획특집/작전과 기상	공군작전과 기상 - 8월 악기상에 대비한다!	10
전쟁과 기상	역사 속의 전쟁과 기상 -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바꾼 날씨	12
특별기고	국산 항공기 공군기술지원체계 구축방향	15
공보25시	기록, 제57공군수송지원단 25시	19
Air Power	우주 작전(Space Operation)	22
항공기 열전	MC-130E/H(Combat talon I / II)	25
생각해봅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26
이달에 만난 사람	내가 선택한 대~한민국 공군	28
호국보훈의 달 기획연재	공군중군문인단사(3) - 공군 중군작가들의 전쟁소설	30
추억의 사진 한장	수해복구 대민지원	34
마음의 양식	교만과 겸양	35

문화가 현장	굴절된 신체를 통과한 세기말의 빛과 어둠 - 화가 로트렉	36
노래의 날개 위에	걸작을 찾아서(2)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	38
찾아가자 인터넷	老人萬歲	40
기지극장	현란함과 중후함의 원투펀치 <마이너리티 리포트>	41
마음으로 읽는 글	엘리베이터 걸 되기	42
지구촌 여행	홀랜드-알카마(Alkmaar)의 치즈마켓	44
Green Air Force	살아있는 그릇, 옹기의 비밀	47
기상전망대	김중호우가 많은 8월에	48
의무상식	여름 휴가, 건강하게 보내세요	49
법무상식	하반기부터 달라진 법·제도	50
이달의 역사인물	독립인물 남상덕(南相憲)	51
	문화인물 박효관(朴孝寬)	51
	호국인물 장철부(張哲夫)	51
공군이 변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찾아라! - 공군 사이버 리더십 센터 개설	52
장병문예	현충원에서의 추억	54
칭찬합니다	주중엔 항공기 정비, 주말엔 탁구 봉사 - 제3훈련비행단 강호길 하사	55
알립니다	F-15K 소개 홈페이지 개설 외 2건	56
항공계 소식	<항공연감 2002> 발간 외 3건	57
퀴즈로! 퍼즐로!		58
문화가 소식	조선목가구대전 - 나뭇결에 스민 지혜 외 3건	59

발행일자/2002년 8월 1일(통권 제290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34, 042-552-6234, 편집·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간접 신고/대공 상담은 국군 기무부대로 ☎ 080-777-1113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간을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임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멋진 공군장교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강한 군대는 군기가 엄정하고 사기가 높으며, 그 바탕은,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첨단정보과학군이 되어야 하며, 그 성패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인력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임장교 여러분들은, 그 동안 습득한 전문지식을 임무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정보과학군을 지향하는 공군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제108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 훈시문 중에서

R O K



Air Force



- 1 2
- 3 4
- 5 6
- 7 8
- 9 10

- 1 김대욱 참모총장 주재 전반기 업무분석 보고회의 개최
- 2 제108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 3 천기광 참모차장 주재 홍보관계관회의 개최
- 4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한·미 공수관계관 협조 회의 개최
- 5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정신교육교관 교안발표대회 개최
- 6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한 한국신문협회
- 7 제3훈련비행단, 215비행교육대대 50주년 기념행사 실시
- 8 제17전투비행단, 비상활주로 출동훈련 실시
- 9 제10전투비행단, 6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10 제16전투비행단, 189비행교육대대 4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R.O.K. Air Force

11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 제15혼성비행단, 전시 대량 공수 지원능력 평가대회 실시

12 제16전투비행단, 항공기 테러 대비 진압훈련 실시

13 제15혼성비행단 폭발물처리반,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 처리

14 제11전투비행단,故 이근석 장군 추모행사 실시

15 제15혼성비행단, 제17회 한성시화전 개최

11
12 13
14 15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띠는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1
- 2 3
- 4 5

- 1 군수사령부, 부산대학교와 군·학 기술교류협정 체결
- 2 공군본부 교육훈련감실, 민간대학 장학담당관 초청행사 실시
- 3 제8전투비행단, 중증장애아동 초청 기지수영장 개방
- 4 제16전투비행단, 국가유공자 초청행사 실시
- 5 항공의료원, 국가유공자 초청 무료진료 실시



대~한민국, 문화적 공동체를 향하여

문화평론가·출판인 김희진



붉은 악마는 각 지체들로 흩어져 각자 살던 지역으로, 원래의 일 자리로, 뚜렷한 형상을 가진 개인들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개인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보다 세심하고 진지한 태도로 다뤄야 한다.

월드컵이 막을 내린 지 한 달. 그리고 이른바 '붉은 악마 현상'도 종료되었다. 현상의 본질은 대상에 대한 완전한 몰입과 조건 없는 열망이었기에 아름다웠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상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개입했던 이들의 해석과 방향몰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 지난 일을 돌아보며 나름의 계산을 해야 한다. 월드컵 대표팀의 4강 신화와 히딩크의 뛰어난 경영술, 그리고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질서를 칭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도했던 현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붉은 악마,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알리다

붉은 악마의 합성이 한여름의 피약벌보다도 더 뜨겁게 온 천지를 달궜던 6월. 그 합성의 주인은 성별도 나이도 계급도 지역적 편향도 아무것도 없이 무형의 거대한 에너지의 총합으로만 존재했었다. 텔레비전 뉴스는 거리응원이 있던 날마다 이 땅의 곳곳을 뒤지며 그 거대하고 형체 없는 '괴물'의 지체(肢體)들을 예리한 카메라의 눈으로 비춰주었다. 그 괴물의 몸통이며 다리며 발가락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언뜻 포착된 형체에는 삶과 죽음을 오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던 병자들의 쇠약한 목소리도 있었고, 거리가 원래 집인 노숙자들의 거친 목소리도 있었고, 속세의 욕망과는 단절된 것으로 보였던 종교계 인사들의 점잖은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색한 한국어 발음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 못생긴(잘생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김새가 없다는 뜻이다) 괴물의 엄청난 에너지에 적잖이 당황했다. 물론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해서 그 괴물을 심각한 위협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모호한 불안을 애정의 투여로 적극적으로 대체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생소한, 그 야릇한 느낌에 완전히 매혹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문화적 독점은 빛을 잃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대중의 열광을 사회적으로 불길하고 불안한 징후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시켜야 하며 자기네들이야말로 그러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닌 자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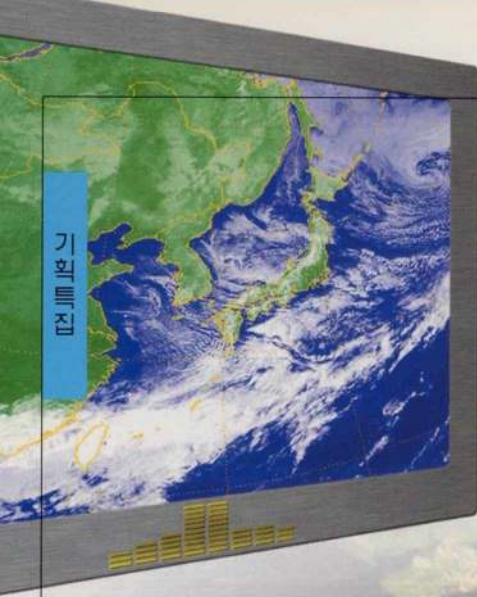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의 경험을 특정 집단의 이해로만 환원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상을 자기네 입맛에 맞춰 쉽게 의미화해버리는 소수의 도식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특정 집단의 이해로만 환원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상을 자기네 입맛에 맞춰 쉽게 의미화해버리는 소수의 도식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들, 그 형체 없는 괴물의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천년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이런 형체 없고 이름 없는 에너지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괴물이 형체 없고 못생겨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대중들, 그 형체 없는 괴물의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천년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이런 형체 없고 이름 없는 에너지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괴물이 형체 없고 못생겨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문화의 눈금

그러니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에너지에 예쁜 생김새를 주는 일이다. 붉은 악마는 각 지체들로 흩어져 각자 살던 지역으로, 원래의 일 자리로, 뚜렷한 형상을 가진 개인들로 돌아갔다. 그들이 거대한 괴물의 소중한 지체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지체의 가장 작은 입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그 작은 입자들이 서로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할 때 괴물은 더 예쁜 형상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개인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보다 세심하고 진지한 태도로 다뤄야 한다. 그 욕망을 긍정하고 그 커다란 크기에 꼭 맞는 형체를 주는 일은 가장 먼저 이 사회 안에 그 작은 지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㉔



공군작전과 기상

- 8월 악기상에 대비한다! -

공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날씨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매우 높다. 작전의 특성상, 항공기의 안전과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해서 기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양한 기상정보들이 최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인공강우실험에 대한 연구 등 미래전에 대비한 발걸음을 옮기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기상 관련 분야의 발전과 함께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일은 완벽한 임무수행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73기상전대 연구조사실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들

일년 중 항공작전에 있어 가장 위험한 계절은 바로 여름(6, 7, 8월)이다. 그 중에서 8월에는 강우일수가 평균 15일로써 일년 중 7월 다음으로 많다. 거의 한 달에 반은 비가 오는 셈이며 따라서 강우에 따른 안개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저고도에서의 구름량이 많아진다. 1,000~3,000피트 사이의 저고도 구름이 걸리는 빈도가 약 20%로써 역시 자주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항공기의 시계비행 빈도는 70%로 다른 달에 비해 10% 정도 낮아지며 이것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한다.

8월 중에는 맑은 날에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8월에는 봄, 겨울과 같은 강풍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서 난류가 자주 발생하여 갑작스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낮에 태양열로 뜨거워진 지표 부근의 공기가 급격히

1년 내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장감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었지만 특히 8월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악기상에 대한 심적 대비는 물론이고 기상 특성에 맞는 작전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상승하면서 크고 작은 난류가 발생한다. 난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상현상이므로 정확한 예보는 어렵지만, 각 기상대에서는 그 날의 대기 상태와 난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위험한 요소는 뇌우이다. 항공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뇌우는 맑은 날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일단 뇌우가 발생하면 지상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고 소나기와 낙뢰가 동반되며 심한 경우 우박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항공기는 뇌우의 주위에서 조종이 어려울 정도의 강한 난류를 경험할 수 있으며 만약 운중에서 비행하게 되면 낙뢰와 함께 우박을 만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중 비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뇌우가 기지로 유입되었을 때는 강한 소나기로 시정이 나빠지고 운고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시계비행이 어려워지며, 바람이 급변하고 돌풍이 불면서 항공기가 강력한 배풍이나 측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항상 최신의 기상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기상정보

통계자료의 수치로 나타내듯이 8월은 악기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년 내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장감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8월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악기상에 대한 심적 대비는 물론이고 기상 특성에 맞는 작전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지상에서는 식중독, 설사 등이 발생하기 쉽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혹서기 개인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미래에는 기상을 변조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안개를 인공적으로 소산시키고,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키며, 뇌우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일부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공군은 훨씬 더 성공적인 작전을 이루어내고 미래전에 걸맞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겸손한 자세로 자연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우리의 막강해진 정보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완벽한 작전수행의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때이다. 여름의 마지막 달 8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8월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 Ⓢ



역사 속의 전쟁과 기상

-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바꾼 날씨 -

73기상전대 연구조사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지옥에 갇혀 있던 키클롭스 삼형제를 구출하여 천둥, 번개, 벼락을 무기로 얻게 된다. 결국 제우스는 이들을 무기로 삼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들의 제왕에 오르게 된다. 신들의 전쟁에서도 날씨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무기였는가 보다. 물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지만 고대인들의 날씨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날씨는 고대의 신화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전쟁사에서 승패를 결정짓고,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적군보다 훨씬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날씨를 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가 하면 천하를 집어삼킬 듯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러시아의 강추위 앞에서는 정복자의 꿈을 접어야 했다.



戰史를 바꾼 기상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기상의 영향으로 진주만 기습에 성공하였으나, 미드웨이 해전에서서는 오히려 기상으로 인해 크게 패하여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1941년 12월 7일, 대규모 선단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기습공격을 감행할 때까지 절묘한 항로를 선택하였다. 당시 일본이 선택한 북방항로에는 강풍과 비, 짙은 안개가 지속되었고 이는 일본 함대의 기동을 숨겨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 항로는 일본 북쪽의 알류산 열도를 거쳐 하와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알류산 열도 부근은 발달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는 지역으로 빗방울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겨울철 찬 공기와 만나 안개가 형성되었으며, 알류산 열도에서 하와이까지의 항로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로 이동하면서 짙은 안개가 형성되어 기습할 때까지 은폐

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군은 350여 대의 항공기로 미군 항공기 350여 대, 전함 20여 척을 파괴하고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낳는 성공적인 기습 공격을 이루어냈다.

1942년 4월,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은 B-52 폭격기로 동경을 공습하는 보복 공격을 단행한다. 6월 1일, 이에 분개한 일본군은 또다시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미드웨이 섬을 향해 발진했는데, 진주만 기습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안개가 항로를 덮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다시 한번 승리의 예감에 휩싸여 여유있는 진군을 하였다. 하지만 사흘 동안 계속된 짙은 안개로 함대들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방 함대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일본군은 수뇌부의 논쟁 끝에 서로 무전을 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이 미군의 도청망에 걸려들어 정확한 일본군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미군은 정보를



획득하여 대비함으로써 일본의 공격을 막고 항공모함 4척, 항공기 250여 대를 파괴하면서 태평양의 재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역의 해수온도보다 공기의 온도가 더 높아 안개가 발생하였고, 해상에서 발생한 안개는 낮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일본은 낭패를 보았던 것이다. 만약 진주만 기습 때처럼 일본이 승리하였다면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날씨는 2차 대전을 끝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때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약 8만명

기상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전에 활용하는 것은 작전 성공의 지름길이며 전쟁에서는 승리의 초석이 된다.

인간은 대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전쟁에서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기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과거의 전사 속에서 배움으로써 미래전에도 대비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 사망자를 낸 후, 2차 원자폭탄 투하를 계획하였다. 목표는 고쿠라 병기창이었고 예비목표는 나가사키였다. 당시 미군 기상 장교는 고쿠라까지의 항로뿐 아니라 목표지점도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하였으나, B-29 폭격기는 출격하였다. 예보관의 말대로 고쿠라에는 안개와 구름이 잔뜩 끼어 폭격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폭격기는 예비목표였던 나가사키로 향하게 되었다. 나가사키에도 구름이 많았으나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폭격기가 한바퀴 선회하는 동안 서서히 구름이 걷혀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7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나가사키는 날씨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맛보았고 고쿠라는 날씨 덕택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날씨 때문에 역사속 비운의 주인공이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이다.

기상, 전쟁의 시작과 끝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기록은 날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전시 승리를 위해서는 기상 정보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상기시킨다.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의 기상 관련 기술은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수치예보 등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그 결과 양질의 기상정보가 군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기상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전에 활용하는 것은 작전 성공의 지름길이며 전쟁에서는 승리의 초석이 된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크레이튼 아브람즈 장군은 “기상은 모든 군사작전임무 수행에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결정 요소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은 대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전쟁에서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기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과거의 전사 속에서 배움으로써 미래전에도 대비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국산 항공기 공군기술지원체계 구축방향

군수사령부 중령 김 동 환

공군은 현재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KT-1 기본 훈련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와 국내외 업체가 공동 개발 중인 첨단 초음속 고등훈련기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 항공기 개발사업은 기술 집약형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과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향후 항공기술의 수출까지 이루어낼 수 있어 항공산업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양산 후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연구개발과 기반조성이 중요한 만큼, 향후 국산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후속 기술지원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공군에서 운영 중인 국외도입 항공기의 기술지원체계는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 지원사항 중 중·저 난이도의 기본적인 기술문의는 군수사 주관 하에 필요시 국내기구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기술지원



사항은 제작사와 국제기술지원기구에 문의하여 회신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기술지원기구(TCG)에 F-16 항공기 등 8종이, 엔진 기술지원기구(CIP)에는 F100 기관 등 5종이 가입되어 연간 약 200억원의 공군예산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해외 항공 선진국 기술지원체계

미국의 기술지원체계 특징은 무기체계 판매 형태에 따라 이원화된 기술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첫째, FMS(Foreign Military Sales) 형태로, 정부주도하에 국제기술지원기구(TCG, CIP 등)를 운영하면서, 가입 국가별 무기체계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기구 운영비용을 분담시킴으로써 운영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군수지원 문제를 해결한다.

국내 항공기 개발사업은 기술집약형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과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향후 항공 기술의 수출까지 이루어낼 수 있어 항공산업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F-16 항공기는 미 공군 주도하에 국제 기술지원기구와 병행하여 기구능력을 초과하는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별도의 'FALCON 2020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F-16 항공기 생산종료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지원을 위해 운영국 비용분담을 통해 적정규모의 생산설비와 인원, 연구지원부서 등을 별도 유지함으로써 가입국들에 대한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상용판매 형태는 제작사내 별도 기술지원기구를 구성하여 운영국가들에 대한 종합 군수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항공 선진국(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들은 제작사내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제작사와 해당 무기체계 운영국가 간 직접계약을 통한 종합적 후속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국산 항공기에 대한 공군 기술지원능력

KT-1 항공기의 기술지원체계는 기존의 공군 군수사에서 수행하던 국외도입 항공기 기술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전담조직을 편성, 제한적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단계에 있는 T-50 항공기에 대한 기술지원능력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종 기술회의시 검토수준도 미흡하고 선행되어야 할 기술지원사항에 대한 조치능력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공군의 역할은 국산 항공기의 양산과 배치단계에서 운영단계로 전환될수록 매우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공군내 기술지원능력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수출시)에서 제기될 기술문의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제작사나 해외 협력업체에만 의존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국산 항공기 운영기간 중 신뢰성 있고 종합적인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의 노후와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공군을 중심으로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별도의 전문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산 항공기 제작업체(KAI)는 선진 항공기

제작사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지원 조직이 없고, 독자적인 기술지원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해외 원제작 업체나 국립과학연구소의 기술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국립과학연구소는 후속사업이 없을 경우 항공기 개발인력과 조직의 상설유지가 어려우며, 품질관리소는 항공기 형상관리(개조) 업무량이 축소되어 자료관리 수준이 될 것이므로 추가재원이나 인력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립과학연구소와 품질관리소는 현행 대군 기술지원체계를 활용할 때만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공군 항공사업단 사업주관부서는 항공기 양산 이후 해체되고 모든 관련업무는 군수사로 이관된다. 군수사 항공기술연구소는 기존의 국외도입 항공기에 대한 구조해석, 도태판단, 기골보강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산 항공기의 수명관리 업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담인원의 추가가 필요한 상태이다.

결국 국외도입 항공기 운영에 따른 수동적인 해외기술 의존체계에서 탈피하여 기술적 자립을 위해서는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 기술지원을 위한 군·관·민의 유기적인 기술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국산 항공기에 대한 안정성 입증 ▶운영기간 중 발생할 기술문제 검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공군중심의 기술지원체계 정립이 요구되며 ▶해외판매 항공기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지원 조직구축이 필요하다.

국산 항공기 공군 기술지원체계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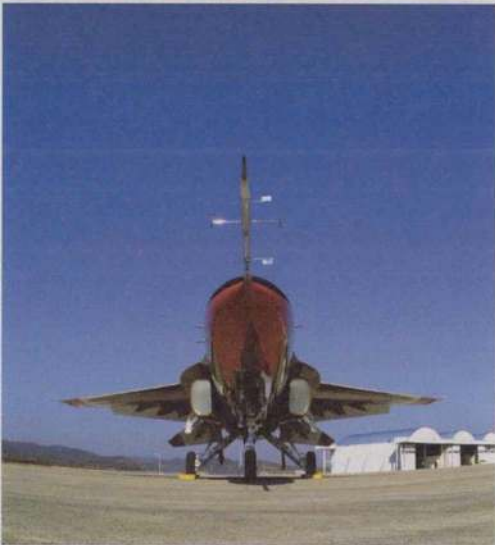
향후, 공군은 국산 항공기 운영기간 중 발생할 국내외 기술문제 해결과 대책수립 등 기술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외판매 항공기에 대한 전력화지원과 기술소유권 관리 및 기술이전을 조정·통제하면서 성능개량과 창정비 관리, 정비기술(검사/수리방법·절차보완)관리 등의 종합적인 기술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이처럼 국산 항공기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군 예하에 전문조직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적 기술지원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공군 자체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국산 항공기 기술지원조직은 단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는 2004년말까지 군수사 예하조직에 포함하여 KT-1과 A/T-50을 연계한 독립적인 기술지원조직을 구축하여 국내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능력을 구비한다. 2단계는 2008년까지 기존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국산 항공기만을 전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과 조직을 별도 편성함으로써 국내외 운영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미 공군 F-16 항공기의 전문적인 기술지

국산 항공기에 대한 향후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군·관·민간의 유기적 기술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항공기에 대한 안정성 입증과 기술적 문제해결, 그리고 타운영국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공군 중심의 기술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원을 위해 국제기술지원기구와 병행하여 별도의 'FALCON PROGRAM'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산 항공기 전담 기술지원조직은 제작사와의 기술지원 계약 및 협조체제 유지, 관련 훈령과 규정·절차 개선보완, 제반 기술자료의 종합유지를 통해 세계제일의 기술수준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공군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국외도입 항공기 기술지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지만, 국제기술지원기구처럼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으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리할 것이다.

KT-1 기본훈련기는 2002년 2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Asian Aerospace 2002)'에서 세계 각국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시승조종사들도 동급기종 중 가장 뛰어난 항공기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KT-1 항공기는 뛰어난 성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출전망도 매우 밝아 2011년까지 총 150대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 공군의 훈련기인 T-38의 대체 공급에 성공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약 600~800대 정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 중심의 안정적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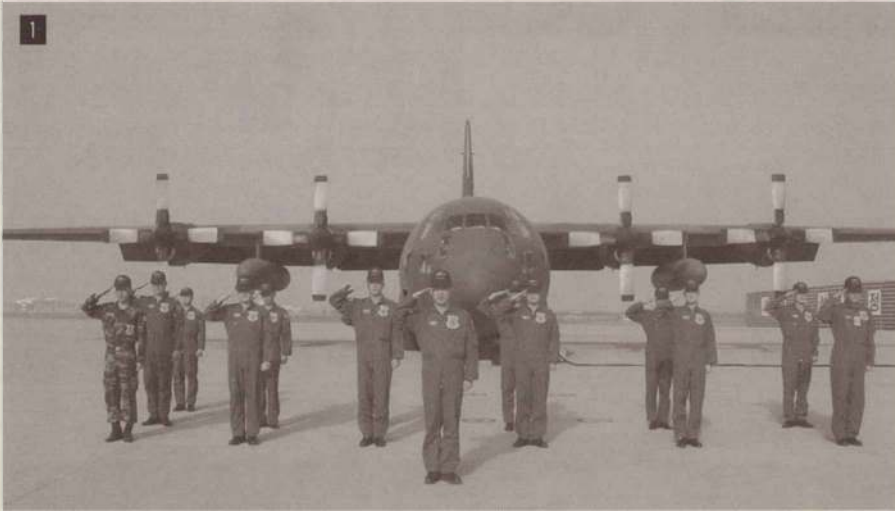
따라서 국산 항공기에 대한 향후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군·관·민간의 유기적 기술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항공기에 대한 안정성 입증과 기술적 문제해결, 그리고 타운영국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공군 중심의 기술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군은 국산 항공기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기술지원 전담조직의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단계를 거쳐 인력과 조직을 보강·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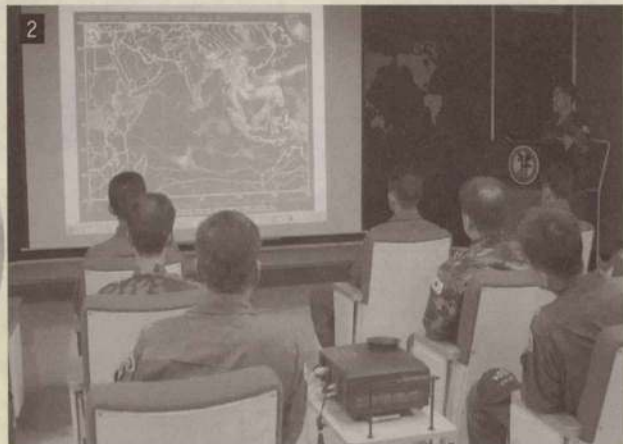
기록, 제57공군수송지원단 2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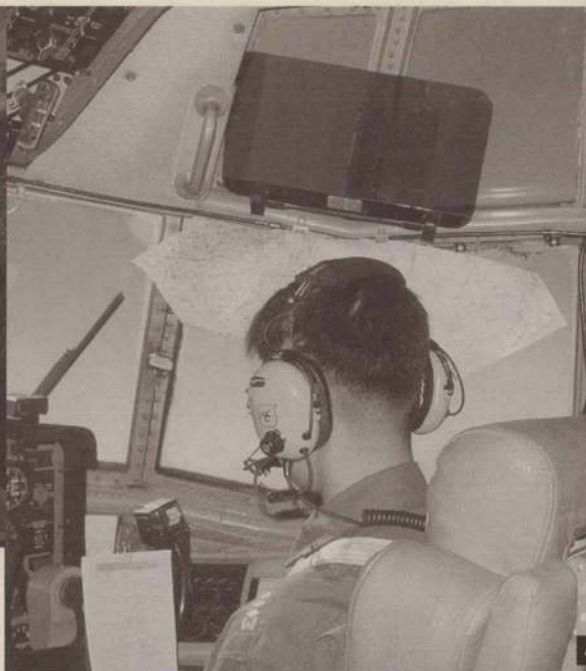
제57공군수송지원단(청마부대)은 작년 12월 항구적 자유작전 지원을 위해 창설된 이래 지난 6월까지 병력, 군수물자, 인도주의적 물자 수송 등 총 30회의 공수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태평양과 인도양 상공을 왕복하는 총 571,823km, 지구를 14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를 이어간 제57공군수송지원단의 임무수행 모습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사진 · 제57공군수송지원단



- 1 필승! 공수임무수행 출발신고
- 2 악기상이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비행 전 기상브리핑







7



8



- 3 4 완벽한 임무수행을 담당할 정예 조종사
- 5 C-130 이륙장면
- 6 대~한국 '디에고가르시아'에서의 국기계양식
- 7 8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안심.
공수물자 적재 및 병력 탑승
- 9 보고 배우시오. C-130 엔진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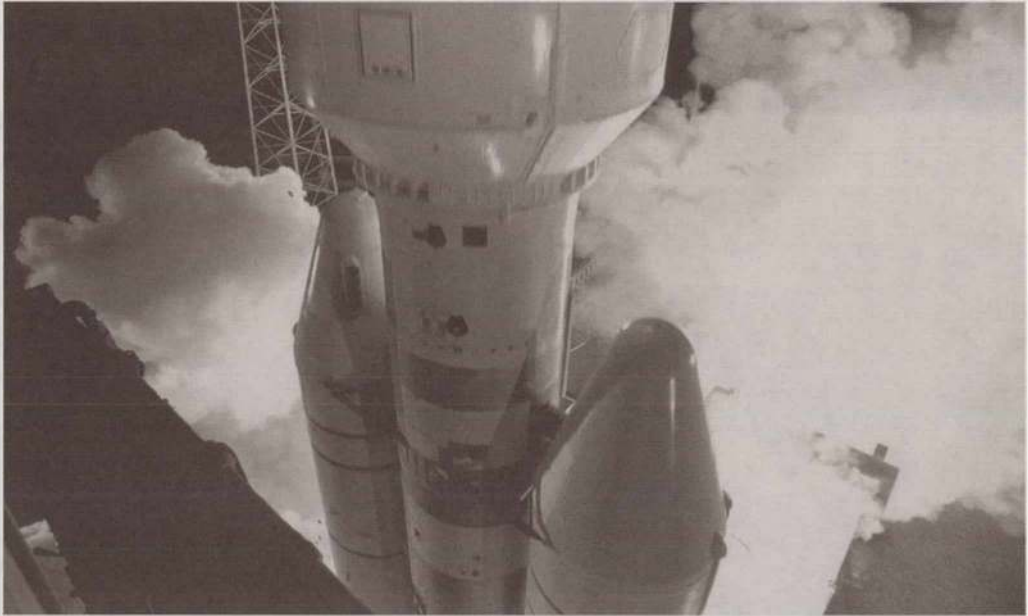


9

미 공군교리 2-2

우주 작전(Space Operation)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1. 전략공격
2. 우주 작전(Space Operation)
3. 제지(counter land) 작전
4. 정보 작전

우주작전 교리는 우주에서의 작전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우주군의 조직, 훈련, 장비, 그리고 운용에 대한 교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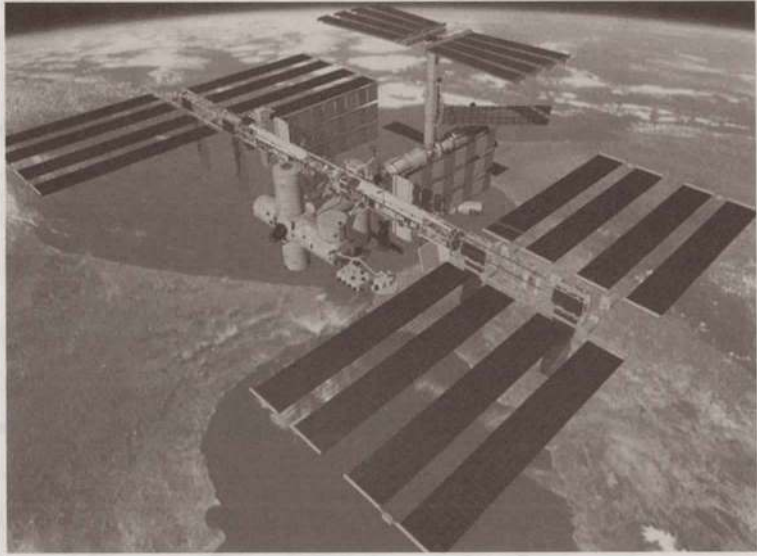
우주력의 속성

우주는 대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와 우주 모두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은 공기역학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운용되는 항공력과는 달리 중력 및 저항효과를 무시해도 좋은 고도에서 운용되어 천체역학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주력을 구성하는 우주체계는 우주요소, 지상기반요소, 연결요소로 구성된다. 우주요소는 위성, 우주정거장, 우주왕복선 등과 같은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지상기반요소는 우주요소와 통신하고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및 인원들로 구성된다. 연결요소는 우주요소와 지상기반요소 양자를 연결하는 통신으로 데이터링크 신호이다.

우주작전은 대기와 공간의 완전한 경계가 없으며 플랫폼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군사활동은 같고 항공우주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광범위한 군사작전에 걸쳐 성공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우주 및 항공력이 항공우주력으로 완전히 통합되면 미래 우주자산은 각군의 전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결정적 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 내에서 운용되는 체계가 제공하는 몇 가지 유용한 속성을 살펴보면, 우선 우주체계는 전세계적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궤도에 배치된 우주기반체계는 지상군이 노출을 두려워하는 곳을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지점에 접근이 가능하다. 특정 국가에 구축받지 않는 특정 궤도에서 충분한 숫자로 배치된



위성은 적지역 상공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지구정지 궤도상에 올라있는 세 개의 감시위성은 거의 완벽히 지구표면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준정지 궤도에 위치한 24개의 항법 위성은 지상에 위치한 군이 지구상 어느 곳에 서라도 3차원 정밀항법 획득에 필요한 3개의 위성을 가시선 내에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우주플랫폼의 이용은 전투원들이 다양한 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장의 '안개'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두 번째로, 우주체계는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성체계는 항법, 통신, 감시 등과 같은 지속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적으로는 궤도상에서 실시간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제성을 지닌다. 하드웨어 및 운반에 초기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로부터 일부 기능은 보다 경제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면, 전세계적 통신은 우주로부터 운용될 때 일반적으로 더 경제적이다. 만약 기상자료가 우주로부터 가용하지 못할 때에는 전세계적 기상예보는 전세계 도처에 다수의 지상기반 혹은 공중에 배치된 기상 센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유효성을 지닌다. 레이저 및 미분자 빔과 같은 미래지향적 에너지 무기는 대기 저항의 부재 및 무중력 상태에서 최적의 운용 환경을 제공하므로 우주에서 수행될 때 더욱 유효성을 지니게 된다.

다섯 번째로 견고성을 지닌다. 우주체계에 대한 현재 위협은 우주체계의 지상 및 연결요소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우주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최근에 생겨난 직상승 대위성 무기, 지상기반레이저, 우주기뢰, 외기권 핵폭발, 그리고 사이버 공격 등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체계 방어는 우주자산을 유지하고 지상 및 우주체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우주군 지휘 및 작전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은 항공우주력을 성공적이고 최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이며, 우주군의 지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 우주사령부는 우주군에 대한 통제권을 수행하는 통합사령부이며, 그 사령부 내의 제14공군사령관이 공군 우주전력을 관리, 통합하고 지시한다.

우주군 작전으로는 우주통제, 공세적/방어적 제우주 작전이 있다. 우주통제는 적군의 우주환

경 이용을 거부하면서 우군이 우주환경을 이용, 적의 방해 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우주우세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주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주체계를 방어하며 적이 미국 혹은 연합 우주자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의 우주군 개발능력을 거부해야 한다.

공세적 제우주 작전은 우주체계의 우주요소, 지상기반요소 혹은 링크요소 공격을 통하여 아군이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적의 우주체계 및 정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우주자산 혹은 능력의 기만, 혼란, 거부, 저하 및 파괴의 목적을 가진다. 공세적 제우주 작전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법은 우주체계 지상시설 혹은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공중공격과 같이 지상기반군의 이용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어적 제우주 작전은 적의 공격 혹은 방해로부터 우주관련 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및 소극적 방어로 구성된다. 적극적 방어는 적의 우주 및 미사일 전력을 탐지, 식별, 추적, 요격, 파괴 혹은 무력화하는 것으로 우주선 기동, 지상 이동링크 및 기반요소 전개, 모의장비 배치를 포함한다. 소극적 방어는 취약성 감소, 아 우주군과 정보의 생존성 보호를 위해 암호, 주파수 도약, 견고화 등의 방법들을 포함하며 우주체계는 위장, 은폐, 기만, 이동, 분산 등으로, 우주작전은 우주탐색 및 정찰, 탄도탄 경보로 방어된다. 이러한 우주체계를 이용한 직접적인 우주 군사력 투사, 즉 우주에서 운용되는 군 무기체계에 의한 지상기반표적 공격은 현재 그 자산이 없지만, 우주레이저와 같은 우주체계는 국가정책과 일치될 때 얼마든지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우주작전을 위해서는 우주군사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주군사력 지원은 군 우주체계 혹은 능력요소들을 유지, 증강시키고 재편성하는 것으로 우주공수와 위성운용이 있다. 우주공수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주자산과 능력을 재배치 또는 새롭게 전개하는 것이며, 위성운용은 위성통신망

을 통하여 원격측정, 추적 및 지휘 지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프로세스 수행을 감독한다.

우주이용 개념 및 전구기획

우주력은 국가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분쟁스펙트럼의 구성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이용 범위는 평시억제 및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에서부터 일반적인 전쟁까지 모든 군사작전을 포함한다.

평시억제 및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위하여 우주군은 무기통제검증자료, 지시 및 경보, 미국 및 연합국에 대한 공중 혹은 탄도탄 공격경보, 적에 의해 통제되는 우주체계의 감시 및 정찰, 지휘 및 통제통신을 제공한다. 그리고 위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위기를 제거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수단을 제공하며, 분쟁시 시기적절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정보를 전구지휘관에게 지원한다.

우주 전역을 위해서는 우선 지휘관은 가용한 우주전력을 통합하고 최적화해야 하며 전구사령관의 전역목표를 지원하는 공중·우주·정보우세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상기반 및 우주기반자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전구기획자는 우주전력에 해당하는 가용 및 지원능력에 대해 완벽한 이해로 우주전력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구기획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무수행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획자들은 평시, 전구에서 위기가 분출되었을 때 전력이 모든 우주체계를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위기 및 전시에는 지역기획참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군 우주지원반을 전개하여 미 우주사령관과 전구사령관간의 추가적인 연락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우주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공군 우주지원반은 우주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동군 공군구성군사령관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



MC-130E/H(Combat talon I / II)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MC-130E/H(Combat talon) 항공기는 미국의 Lockheed Martin사의 4발 Turboprop 항공기로써 MC-130E(Combat talon I)는 1965년 최초 비행 후 1966년부터 운영되었고, MC-130H(Combat talon II)는 항법장비 및 전자전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 1990년 최초 비행 후 1991년 6월부터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수하게 계량된 MC-130 항공기는 비행시 공중급유장치, 지형추적/회피 레이더, INS/GPS, 고속 공중투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C-130보다 좁은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인원 및 물자를 투하할 수

있다. 또한 저고도 야간 약천후 침투성능 역시 우수하다.

E형은 14대가 제작되었으며, 그 중 9대는 지대공 Fulton STAR system(공중구조) 장비를 장착하였고, 사막의 폭풍 작전시 심리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H형은 E형을 보충하기 위해 제작된 개량형으로, 24대가 제작되었으며 NVG 기능을 갖추고 있는 CRT 계기 조종석과 개선된 FLIR(전방감시 적외선 장비), ECM 장비가 포함되었다.

Combat Talon 항공기가 수행 가능한 임무에는 야간/운중 기상상태에서 레이더 및 항법장비(INS, GPS)를 이용한 초저고도항법 침투임무, 생존성 증대 및 목표지역 은폐가 가능한 250Kts에서의 공중투하임무, CARP(Computed Air Release Point) system 및 Beacon, 레이더, FLIR, NVG 등을 이용한 고고도 DZ 식별 및 정밀투하임무, 주/야간 공중 연료 재보급 임무 등이 가능하다. 특히 많은 임무가 적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SAM 레이더에 대한 경고와 Chaff/Flare 살포가 가능하며, Jamming 및 IR 추적 방해가 가능하도록 ECM/IRCM 장비를 갖추고 있다. ⚡

▶ 제원 및 성능

- 기장/기고/기폭 : 100ft 10inch(E), 99ft 9inch(H)/38ft 6inch/132ft 7inch
- 엔진 및 추력 : 4개의 Allison T56-A-15 turboprop(4,508SHP/대당)
- 좌석/화물공간 :
E형(승무원 9명, 병력 53명, 또는 공수전력 26명)
H형(승무원 7명, 병력 75명, 또는 공수전력 52명)
- 최대이륙중량 : 155,000Lbs
- 최대순항속도 : 366Kts
- 최대작전범위 : 3,110NM



꿈★은 이루어진다!

공군 규정·교범 개선위원장 대령 심우섭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대회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다. 그 중에서도 대회 기간 중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들과 '붉은 악마'가 보여준 응원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잠재력과 단결심을 보여 준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붉은 악마'가 한국과 이탈리아와의 8강전에서 펼친 '꿈(비전)★은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은 개인적으로 깊은 감회를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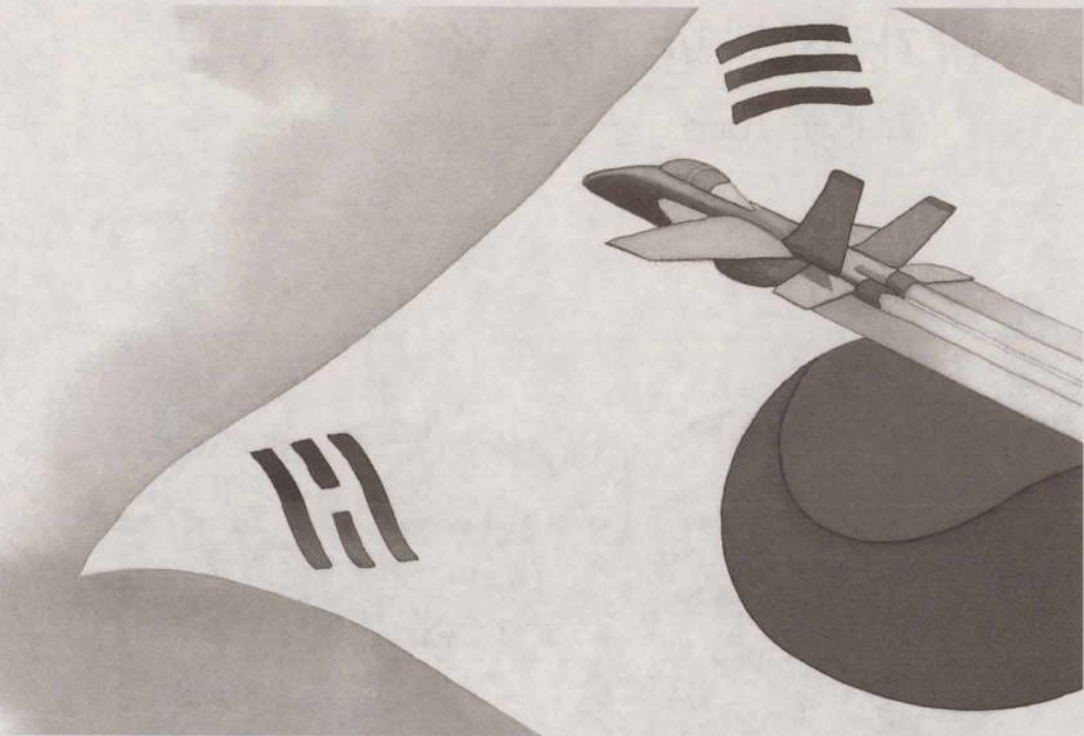
날고 싶다는 소망이 실제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다니는 상황을 만들었고, 언젠가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로켓이 달에 착륙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에서 소망한 '알라바마주의 한 시골에서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손잡고 신나게 뛰어 노는 모습과 어른들도 함께 일하는 꿈'도 실현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을 본질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류 문명사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현재의 우리들이 미래에 대해 소망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공군의 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가 수립한 '공군의 창의력과 의지 및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한 「공군비전2025 : 항공우주군」에 대한 자부



심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운데는 국가안보정책, 국방예산제약 등 현재의 제약과 항공우주군을 유형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여, 이를 수 없는 꿈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크림단지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 우화를 통해 세심 자신감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크림 위에서 두껍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개구리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나오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마침내 한 개구리는 부정적인 자세와 ‘이 크림단지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쩔든 죽어야 한다’라고 독백하고 절망함으로써 크림 속에 빠져 죽었다.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버둥치며 크림을 휘저었다. 그 결과 점차 발끝에 딱딱한 느낌이 들어오더니 크림이 버터로 변했다. 마침내 개구리는 단지로부터 뛰어나와 살아날 수 있었다.

말에서 실천으로, 꿈에서 현실로

만일 우리도 첫 번째 개구리와 같이 ‘꿈 같은 소리하지마!’, ‘잘 될까?’, ‘또 말잔치 아냐?’라는 열등감과 체념을 갖게 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개구리와 같이 ‘꿈이 없는 개인 또는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야!’라는 불굴의 정신과 꿋꿋한 믿음을 갖고 정열과 정성을 기울이면 우리의 ★공군비전2025★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다. 그 실천의 몫을 위해 공군 규정·교범 개선위원회는 ‘지식기반의 규정·교범체계구축’ 추진과 ‘공군의 미래 핵심능력, 무기체계 관련 사용자 중심의 과학 기술소요지침서’를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내가 선택한 대~한민국 공군

- 108기 사관후보생 김형수·명규훈 소위 -

공군본부 공보과



공군 병으로 군 생활을 마친 후 조종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다시 공군 장교로 입대한 의지의 보라매! 지난 달 공군 제108기 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한 김형수 소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평소 항공기에 관심이 많아 항공기 프라모델 제작 동호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김소위는 지난 1996년 7월 공군 병 제510기로 입대,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비행대대 작전계에서 CQ병(Charge of Quarter) 생활을 하던 중, 공군 파일럿들의 멋진 모습에 반해 조종장학생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CQ병이란 비행단의 상황판에 표시되는 비행·작전스케줄을 기록·유지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병사를 뜻한다.

'98년 6월 당시 공군 병장이던 김소위는 조종

108기 사관후보생들은 앞으로 전후방 각 분야에서 '21세기 항공우주군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을 위해 조국 영공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하려 했지만 '현역 지원불가'라는 병무청의 방침에 따라 일단 그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주위 조종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1년간 착실히 준비한 끝에 제대 6개월 후인 '99년 6월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조종사의 길에 입문할 수 있게 되었다.

F-15K 조종사를 꿈꾸며

평소 활달한 성격과 꼼꼼한 일처리로 조종사와 주변의 동료 장병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김소위는 정예 공군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를 목표로 새롭게 군 생활을 시작한 이번 108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서도 동기생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명예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리더십과 통솔력을 탁월하게 발휘했다.

교육훈련 기간 동안 월드컵 한국전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전 후보생들이 한데 모여 경기를 관람했다는 김소위는 "함께 동고동락한 동기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경험만큼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다"며 "특히 월드컵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공군이 경기장 상공을 초계 비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웬지 모를 전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소위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도전이 조종사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조종사가 되려는 목표로 공군에 2번째 입대하는 길이 그렇게 푸근할 수 없었다"며 '공군이 천직'임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조종사

선배 장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우선 조종훈련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15K를 조종해 대한민국 공군 최고 조종사인 '탑건'이 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온 공군인

한편 같은 날 입관한 명규훈 소위는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에 입대해 관심을 모았다. 명소위는 부모님의 사업관계로 지난 1985년 아르헨티나로 이주, 10여 년 이상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심,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997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귀국해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넘치는 활력과 생기에 반했으며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입대를 결심, 공군사관후보생에 지원하게 됐다"고 입대동기를 밝히면서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살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정예공군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군생활의 각오를 다졌다.

대~한국 공군의 주춧돌

253명의 108기 사관후보생들은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우수한 재원들로 1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통하여 공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능력과 직무지식, 그리고 강한 체력을 연마한 후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개인 전공분야와 경력을 고려한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이들은 앞으로 전후방 각 분야에서 '21세기 항공우주군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을 위해 조국 영공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



공군종군문인단사(3)

- 공군 종군작가들의 전쟁소설 -

공군사관학교 중령 신영덕

지난 호에서는 반공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공군종군작가들의 전쟁독려소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전쟁기 현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전쟁비판소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곽하신은 전쟁 당시 전쟁에 의한 여인들의 수난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전쟁은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과 헤어지게 만들고, 여인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며, 그 과정 중에 자살을 하거나 혹은 매춘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인들의 수난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는 셈인데, 곽하신의 『죄와 벌』은 그 한 예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부산 초장동을 배경으로 전쟁기 현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 내용은 주인공 옥영이가 남편이 군대로 간 후 남편의 친한 친구 K에게 강간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수난받는 여성이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 간 병정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한다.

것이 무엇이 죄이길래 그런 녀석에게 밟혀야 되나. 전쟁은 이겨야 한다고들 떠들면서 싸우는 병정의 아내나 누이들은 까딱하면 그런 놈의 꾀임에 넘어가기 일쑤다(『신작로』, 희망사, 1955, p.46.).



전쟁 당시 전쟁에 의한 여인들의 수난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은 여인들의 수난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여자에게 처음부터 친절할 녀석일수록 모조리 색미들이다. [중략] 남편이나 오빠를 전쟁터에 보낸



김동리(1913~1995)

이처럼 이 작품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면서도 생활능력이 없는 여인들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애국심만을 강조하던 당시의 많은 작품들과 대비된다.

김동리는 전쟁독려소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전쟁 당시 발표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전쟁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동리의 『귀환장정』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피난지 현실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서 자전거포를 하던 의권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상복이라는 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작품은 1951년 3월 그믐께부터 일어난 3일간의 일을 다루고 있다. 석 달 동안을 김해에 있는 훈련소(제2국민병훈련소)에서 보내고 귀환하던 의권과 상복은,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을 찾으러 간다. 이 과정에서 사이 좋던 이들은 상대방의 변한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 의권은 돈을 아끼려는 상복을 '맹추'로, 상복은 씹씹

이가 헤뜬 의권을 '건달'로 생각한다. 이튿날 아침 부산에 들어와 상복은 동회를 돌며 가족 명부를 확인하러 다니고, 의권은 돈을 벌여오기로 하였으나 둘 다 실패하고 만다. 이후 상복은 "사회부엔가 보건부엘 가면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밖에 광복, 약품, …… 뭐 귀향장정에 대한 우대가 놀랍지 않더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지만, 이튿날 아침 의권과의 함께 자신의 전 재산인 오천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절망한다. 그리고 이날 정오경, 시청 앞에 쓰러져 있는 상복을 의권이 업고서 '사회부 쪽도 보건부 쪽도 아닌' 어느 골목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국민방위군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의 집단 후송 및 수용에 관련되어 일어난 국고 유용 사건이다.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어 제2국민병역에 해당되는 만 17~40세의 장정이 이에 편입되었으나, 전선의 후퇴 작전이 감행되자 방위군은 장정을 집단적으로 후방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이때 방위군 간부들은 막대한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사복을 채웠다. 그 결과 후퇴 장정에 대한 보급이 부족하게 되고 천 수백 명의 사망자와 무수한 병자를 내게 되었다(이홍직 편, 『국사대사전』, 삼영사, 1984, p.184.).

작품에 나타난 의권, 상복의 거지 행색, 그리고 상복의 죽음 등은 이러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비판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작품은 이 문제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의권의 성격이 모호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적과의 싸움 중에 있는 현실 속에서 '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작가 자신의 배려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김동리가 「전쟁과 문학의 근본문제」라는 글을 통해, “전쟁 중에는 당분간 자유와 조국의 광영 있는 승리를 위하여 과연 필은 검으로 수류탄보다도 더 위력 있는 영검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귀환장정』에 대한 김동리의 다음 설명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처음 영내(營內) 생활을 정면으로 그려려 했던 것이 그때는 아직 이 사건의 책임의 소재가 공적으로 구명되지 않았을 때라, 그 반항의 여하에 미묘한 바 이겠고, 또 인간성보다 사회성 혹은 정치성에 기울 것 같기도 해서 생각한 결과 지금의 각도를 취했던 것이다(『귀환장정』, 수도문화사, 1951, p.149).

유주현의 『영(嶺)』(『창공』, 1952. 3)은 피난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형숙은 종군기자인 남편이 있는 대구를 향해 가려고 한다. 그 모양은 지극히 가련하게 묘사된다. 이불 보따리는 머리에 이고, 오른손에는 피난 살림을 싣 보따리를 들고, 왼손으로는 청얼거리는 일곱 살짜리 경자의 손을 잡고, 등에는 세 살짜리 젓먹이를 매달고 있는 것이다. 쉬고 가자는 경자에게는 앞산만 넘으면 된다고 속이면서 간신히 산을 넘었는데, 산에는 비행기 공습으로 죽은 피난민과 중공군의 시체가 나뒹굴고, 까마귀는 시체를 파먹다가 산 사람에게까지 달려든다. 형숙은 까마귀를 피해 간신히 산 아래로 내려온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젊은 여자는 육보기 쉬우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따발총 소리가 난다. 그러자 형숙은 위험을 무릅쓰고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묘사의 치밀함과 사건 전개의 긴박감을 통해 이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수난과 피난길의 비극적 참상을 실감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황순원의 『목숨』은 전쟁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강서방은 ‘마흔 고개를 넘은 지도 이미 이태’이며, 아이 둘과 아내가 있는 농사꾼이다. 그는 전쟁이 터지자 인민군으로 불려나와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된다. 일몰이 되어 출동 명령을 받았을 때 비행기 공습이 시작되어 강서방은 굴속으로 피신한다. 여기서 그는 농사일을 하다가 인민군 군대에 들어오게 된 열네 살의 소년을 만나게 된다. 공습이 끝나자 밖으로 나가서 부대원들을 찾아 나서지만 부대는 간 곳이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낙오하였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이튿날 이들은 가지고 있던 콩가루와 생쌀을 먹으면서 물을 찾아 남쪽으로 걸어간다. 이때 강서방은 피투성이의 인민군 부상병을 발견한다. 강서방은 그에게 물을 먹이지만 곧 죽어버린다. 강서방은 시체의 피묻은 쌀주머니를 가로챈다. 그런데 얼마 후 소년이 토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러자 강서방은 당황하여 소년을 업고 달려가면서 절규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황순원(1915~2000)



작가 황순원은 “주인공의 마지막 부르짖음 그것이야, 다만 그 한사람만의 부르짖음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나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하였다”라고 한 바 있거니와, 이 작품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독려소설 대부분이 인민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는 반면, 이 작품은 전장에서 죽어 가는 인민군도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군종군작가들은 전의를 고취하는 전쟁독려소설 외에도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전쟁을 비판하는 전쟁비판소설을 많이 발표하였

다. 물론 이 작품들은 한국전쟁기 현실의 곁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비난만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더욱이 현 단계 한국전쟁 연구의 기본과제가 “일단 있었던 사실의 확인, 즉 진실의 복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작품들은 한국전쟁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이상으로서 필자는 공군 종군작가들의 활동에 관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제한된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관심 있는 독자께서는 필자의 저서 『한국전쟁과 종군작가』(국학자료원, 2002. 6)를 참고하였으면 한다. 이 책에서는 육군과 해군 종군작가단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소설 이외에 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수해복구 대민지원(제16전투비행단 · 1988)

8월
여름
올해도 태풍은
어김없이 찾아 왔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삼질 · 삼질 · 삼질
비에 쓸려간
논과 도로가
활주road보다 길어 보인다.

어젯밤 비에
고향집은 괜찮은지.
쓰러진 벼 앞에서
쓴 담배 피워 무실
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

흐르는 땀이
비처럼 쏟아진다.
잠시 허리 펴고
고향하늘을 바라본다.

교만과 겸양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우리나라의 국조(國祖)인 단군의 말은 천부경(天符經)과 삼일신고, 그리고 참전계경(參佺戒經)에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참전계경에는 모든 사람을 어질게 하고, 어리석은 이가 없게 하며 또한 스스로 사람의 도리를 깊이 깨우쳐 이치에 순응하며 지혜롭게 사는 여덟 가지 이치와 삼백예순여섯의 지혜로운 말씀이 실려있다.

이 경전에는 교만하지 않으며(不驕) 스스로 겸손하다(自謙)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성품과 정신을 담고 있는 진리요 이념으로써 가슴에 새겨둘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교만하지 않다'라는 조목을 보면 '어진 사람은 덕이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재산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높아도 낮은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할 적에는 상대방이 위축될까 염려하여 친근한 얼굴빛으로 가까이 하며 말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단군은 '스스로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겸(自謙)이란 비록 재주와 덕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장점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람은 적은 재주와 알팍한 덕이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나타내고 입으로 말한다. 그러나 군자의 재주는 물에 잠겨도 헤엄치지 않으며, 군자의 덕은 아무리 뜨거워도 타지 않는 법이다.'

또한 서기전 268년 공자의 7대손 공빈이 쓴 '동이열전'에 보면 "옛날부터 동쪽에 동이(東夷)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비록 크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고, 그 군대는 비록 강하

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후해서 다니는 이들이 길을 서로 양보하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누며 남녀가 분별이 있으니 가히 동쪽의 예의바른 나라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공자도 "군자는 천리(天理)를 따른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펴 있으면서도 자랑하거나 방사(放肆)하지 않는다. 군자는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다."며 군자의 나라인 동이(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우리민족은 그 어느 한 순간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행동하며 살아왔고 예의바르며 겸양의 덕을 존중해 온 민족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은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은 물론 민족의 대동단결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관람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같이 친절하고 예의바른 민족혼을 발휘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에 없었던 민족정신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 🇰🇷





굴절된 신체를 통과한 세기말의 빛과 어둠 - 화가 로트렉 -

대전매일 문화부 기자 권도연

니콜 키드먼 주연의 '몰랑루즈'에서 단역으로 나오는 절름발이 화가 '툴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 · 1864~1901년)'. 댄서와 창녀를 자유로운 필치로 묘사한 그의 작품은 흥겹고 명쾌하다. 동시대의 조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진 그의 작품, 특히 30여 편의 포스터는 현재도 다양한 광고와 포스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복제시대를 거부한 미적 아우라

로트렉 이전의 대량복제와 복제를 위한 판화와 달리, 판화기법을 빌려 포스터 형식의 예술로 승화시킨 그의 작품은 프랑스 근대미술의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판화의 역사에서 뿐 아니라 미술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작품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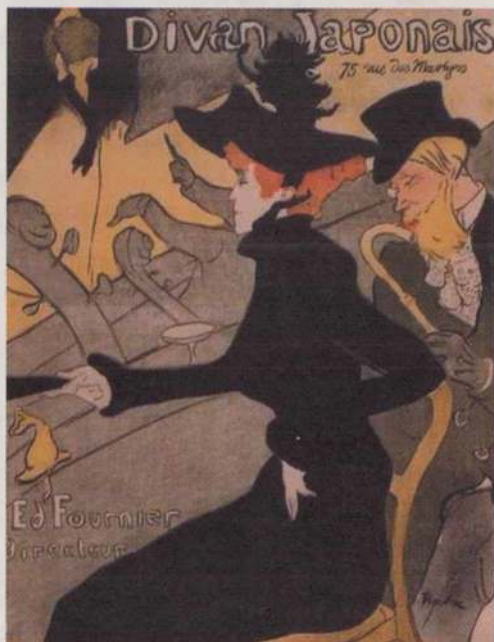
"인간은 추악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며 추한 것에서 오히려 삶의 감동을 발견했던 이 천재 예술가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근친결혼을 한 부모 탓에 152cm의 키로 성장이 멈춘 '천재적인 불구'였다.

협소스런 외모로 여성은 물론 가족으로부터도 냉대를 받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37세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림은 그에게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는 몽마르트르에 화실을 차리고 13년 동안 사창가와 카바레를 오가며 환락가의 명암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추한 아름다움을 탐닉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천성이었을까. 그의 예술을 들추면 가스등 불빛에 노랗게 달아오른 삼류 춤판의 열기가 후끈 전달된다. 사창가의 어둠한 뒷골목 창문 틈새로 알싸한 살냄새가 비릿하고, 검은 장갑의 매끄러운 관능은 짜릿한 현기증을 일으킨다. 서로 부둥켜안고 잠든 창녀들의 아침나절이 적나라하게 펼쳐지지만 이런 풍경이 로트렉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화가의 붓은 세기말 대도시의 밤을 거침없이 벗겨 내렸다. 마치 창녀들이 속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 던지는 것처럼. 당시 비평가들은 이런 로트렉의 그림이 변태와 패륜의 사악한 취미라고 몰아쳤지만 그는 별로 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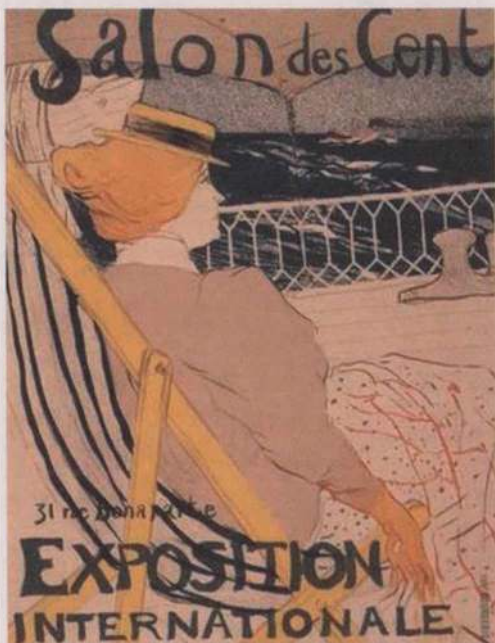
치 않았다.

그의 작품에서 항상 느껴지는 깊은 인간애는 고달프고 힘든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로트렉은 항상 위트와 쾌활함을 지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역설적인 삶의 표현방식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작품이 오늘날 높이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 같은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법이나 양식적인 면에서 로트렉은 천재적인 소모가다. 물론 그의 데생은 기존의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대상이 지닌 본래의 선을 그는 과감하게 과장하거나 생략함으로써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작품을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구분하면 로트렉의 그림은 다분히 동적이다. 그는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의 초상화 외에는 결코 정지된 것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았고, 그들의 초상화마저도 마치 화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모델의 특성을 기묘하게 추출해낼 줄 알았다.

움직이는 대상을 신속하게 화면 안에 고정시키는 재능을 뒷받침해주는 그의 힘은 정확하고 개성적인 선에 있다. 실루엣으로 표현된 인물



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까지도 그는 면이 아니라 윤곽선에 의해 드러냈다. 그의 색채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는 기존의 어떤 유파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었다.

천재적인 불구가 보여주는 인간애

스토아 철학자 필로스트라투스는 '예술이란 꼭 삶의 무게만큼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술잔에 담기지 않는 진실은 붓을 달 가치가 없다"라고 웃어넘겼던 로트렉은 자신의 삶에다 갖다대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예술을 남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신성한 술잔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

명작으로 기록되는 작품에는 대부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감동과 특별한 이끌림이 있다. 그것은 작가의 단순한 기법적인 측면을 떠나 순수한 직감과 영감에 의한 자기표현의 결과로, 결국 한 개인의 주관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로트렉이 그린 것은 최고의 낭만과 부가 넘쳐나던 파리의 일면이지만,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수단이 아닌 예술로서의 관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미술사는 그에게 한자리를 내주고 마는 것이다.

귀족출신이면서도 불우한 생애를 살다간 작가, 그럼에도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로트렉의 작품은 새삼 인간애를 느끼게 한다. ⊕

걸작을 찾아서(2)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

서울시 교향악단 양 창 섭



모차르트는 귀족사회에서 때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때로는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삶과 음악을 만들어갔으며, 그 음악은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파리에서 실패하고 잘츠부르크를 떠나서 빈으로 가는 여정은 자유로운 예술가로 태어나는 과정이었으며, 후기의 명작들은 '저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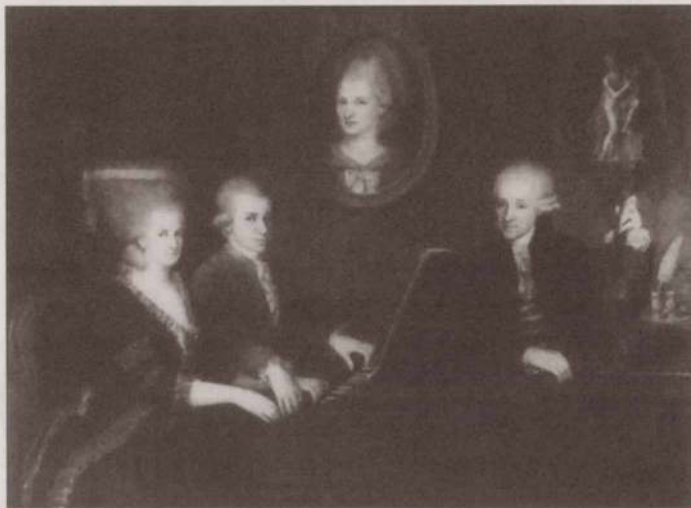
모차르트에 관해 우리에게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이다. 궁정사회에 대한 연구자였던 그가 쓴 글은 단순히 모차르트를 '타고난' 천재로 보는 선입견을 바꾸고, 한 음악가가 관습에 맞서면서 자유로운 예술가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곧 모차르트는 귀족사회에서 때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때로는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삶과 음악을 만들어갔으며, 그 음악은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파리에서 실패하고 잘츠부르크를 떠나서 빈으로 가는 여정은 자유로운 예술가로 태어나는 과정이었으며, 후기의 명작들은 '저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모차르트가 있다

피아노 협주곡 24번은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 몇 안 되는 단조곡으로 다른 단조곡들, 가령 교향곡 40번, 피아노 협주곡 20번 등과 마찬가지로 의심할 나위 없는 걸작이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협주곡 중에서 가장 큰 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 편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은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3번 〈에로리카〉에 이르러서이다.

엘리아스의 말이 문외한의 간섭이 아님을 입





증하는 이는 유명한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인데, 그는 모차르트가 단조곡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작곡한 후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고, 빈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느꼈다”고 추측한다. 그래서 22번이나 23번과 같은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작품들을 작곡하였으며, 24번에서 다시 20번과 같이 자신의 창조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곡으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 24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성 역시 2악장만 E장조와 E플랫 장조로 조금 다를 뿐 1, 3악장은 c 단조로 두 곡 모두 같음), 이 곡은 지극히 ‘베토벤적’이며 ‘교향악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경박한 천재 모차르트’와 ‘심오한 인간 베토벤’이라는 대립항의

설정을 여기에서 폐기해야 한다.

한 번은 천재로, 또 한 번은 인간으로

음악의 변천을 어떤 경향성을 의식하며 바라보았을 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은 자신의 생존조건이었던 ‘귀족을 위한 음악’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혹은 음악 자체를 위한 음악’으로 향하고자 했던 모차르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베토벤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납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클라라 하스킬 여사나 머레이 페라이어의 음반보다는, 최근에 녹음된 피오토르 안테르체프스키(버진)의 음반이 설득력 있는 연주가 될 것 같다. ⊕



A ticket for a concert given by Mozart c. 1784-5

老 老 · 人 · 萬 · 歲 歲

인터넷서퍼 sy_lee@cultizen.co.kr 이 수 영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지위는 매우 이중적이다. 고령자는 우대를 받는 동시에 소외를 당하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유교적 전통은, 우리에게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과 우대를 미덕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노약자석을 제외하면 그다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조직 내 서열의 문제라든지, 일상의 사람관계, 언어습관 등에 있어 노인 우대의 전통은 꽤 확고해 보인다.

반면에 지극히 산업사회적 측면인 '노인의 소외' 현상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IMF 이후 부쩍 낮아진 퇴직 연령을 비롯해서, 사회는 점차 고령자들에게서 일할 권리를 박탈해간다. 사회는 점차 핵가족화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 복지시설은 부족하여 노인 부양의 부담은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다. 게다가 기술과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격리되어 가는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문화적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노인들만의 몫은 아니다. 어떠한 젊은이라도 결국은 '에비 노인'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소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각 지역자치단위마다 존재하는 노인복지회관의 홈페이지 목록이 준비하다. 노인학 연구(myhome.hananet.net/~godder, www.kig.or.kr)나 노인 건강(www.sweetcare.com, www.silverworld.co.kr), 요양 시설(www.euntoi.co.kr, www.seongaewon.com) 관련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런 뒷받침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고령자 스스로의 실질적 의욕과 활동이

중요할 것이다.

아직 전체 인터넷 인구 대비 노인들의 활동은 저조한 편이다. 바둑이나 동문회 사이트 정도를 즐겨 방문하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사이트에서 노인들의 목소리를 찾기로 쉽지 않다. 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상담을 하거나, '62세의 아름답고 건강하신 엄마의 친구분을 찾습니다'와 같이, 인터넷에 어두운 부모를 대신해 글을 올리는 정도이다.

하지만 실버넷(www.silvernet.ne.kr)을 방문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고령자들에게 무료 인터넷 교육을 펼치는 이 민간운동단체는 노인들의 활발한 인터넷 진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친목 도모 모임 게시판과 주제별 게시판에는 젊은이 위주의 통신체 말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서투르게도 보이지만 재미난 문체의 글들이 올려져 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남기는 '친국일기' 게시판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감동적인 에세이들로 가득하다.

그다지 두드러지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 스스로에 의한 단체들도 간혹 보인다. 그런 정치적 사회적 단체 중 하나가 바로 대한은퇴자협회(www.karpk.org)이다. 은퇴시기를 늦추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법정정, 연령 차별 금지 촉구 캠페인 등을 최근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은퇴자를 위한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놓는 것도 중요한 이들의 역할이다. ☺

현란함과 중후함의 원투펀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평론가 김지훈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크루즈라는 '블록버스터 원투펀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 사회에 대해 현란함과 중후함을 겸비한 작품이다. 현란함은 스피버그의 시각적 상상력의 산물이며, 중후함은 이 영화의 원작인 필립 디(Philip K. Dick)의 공이다. 신체적으로는 기형으로 태어났지만 미래에 대한 예지를 소유한 세 정박아들을 모태로 한 '프리-크라임(pre-crime)'은, 말 그대로 2054년 워싱턴에 살인 범죄율을 제로

에 다다르게 하는 꿈의 시스템이다. 범죄 수사국은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재현하는 미래의 살인 장면, 피살자와 살인자의 이름을 근거로 잠재적 범죄자들을 사로잡는다. 정말로 범죄율이 제로에 가까워질 무렵, 이 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난다. 다름아닌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이끄는 실질적 인물인 수사국장 존 앤더튼(톰 크루즈)의 이름이 살인자 명단에 오른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앤더튼의 시점과 관객의 시점을 적절히 교차하는 가운데 '프리-크라임' 시스템의 역설과 미래 사회의 가설에 대해 질문한다. 세 정박아들이 모두 동일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셋 중 하나가 다른 예언을 한다면? 그리고 그 다른 예언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다수인 두 사람의 예언을 따라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바로 그 '소수의 예언'을 지칭한다. 시스템의 완전무결함을 위해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기억의 유통경로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만 앤더튼이 살인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이너

리티 리포트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앤더튼의 본원적 결핍이자 치명적 외상이 드러난다.

6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앤더튼의 자아 발견 과정이 어우러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기억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려한 특수효과를 무기로 질문한다. 세 정박아의 예언적 영상은 잠재의식을 재연하듯 흐트러져 있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앤더튼의 능수능란한 손놀림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미래적 존재를 탁월하게 형상화한다. 무엇보다도 3차원 입체 화면으로 거리를 둘러싸는 광고 화면과 망막을 통한 신원인식 시스템은, 통제가 만연하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과 암울한 전망을 동시에 던진다.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든 멀리 떨어진 공간이건 그 어떤 것도 영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자들이 먼저 의명의 시스템에 의해 '보여져야' 한다. 심지어 용의자를 수색하기 위해 '스파이더'라는 기계가 보통 사람들의 망막을 검색할 때, 미래 사회의 일관적 통제 시스템은 그 어두운 얼굴을 드러낸다. ㉠

엘리베이터 걸 되기

방송작가 김은희

30층짜리 고층빌딩에 엘리베이터 걸이 살고 있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예쁜 얼굴, 게다가 성격까지 따뜻하고 친절하 그 아가씨. 학벌은 좀 떨어졌지만 주변에서 설새없이 '선'이 들어오는 건 당연했다. 특히 그녀의 고모는, 거의 필사적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남자들에게 그녀를 소개시켜 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엘리베이터 걸의 직업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엘리베이터 걸'이다. 그녀가 하루 여덟 시간 동안 하는 일이라곤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지하 3층 주차장부터 지상 30층 임원실까지 설새 없이 오르내리는 일 뿐이었다. 아, 물론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있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올라갑니다.', '이곳은 6층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공손하게 약 45도로 깎듯이 인사만 하면 됐다.

그렇게 단순한 업무를 하는 그녀에게도 직업적인 애환이 있을까? 물론 없을 리 없다. 그것도 남모르는, 아주 은밀한 고통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입사연차에 따라 엘리베이터 걸에게 보이는 반응들이 달랐다. 처음으로 그녀를 발견할 입사초년쯤엔 신기하다는 듯 쳐다본다든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기를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는 재미쯤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작 그녀를 보면서도 그녀를 보지 않게 되곤 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카펫이나 멋진 샹들리에처럼, 그녀 역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부속품 혹은 장식품처럼 여겨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녀를 단지 엘리베이터 안의 부속물처럼 여긴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은 공간 안에 어떤 이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하면 스무 가지도 넘는 말투와 표정과 행동거지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엘리베이터 걸의 말에 따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 어쨌든 '그녀들'쯤이야 듣는 귀 없는, 그저 그림처럼 그 자리에 박혀있는 '사물'쯤으로 아는 사람들을 태우고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수백 번 설새없이 고층빌딩을 오르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고 희생되곤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은밀한 장소에서 사람들은 '나만의 이야기'를 해대기 바빴고 다시 그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며, 다시 그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회사의 이야기'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그 '회사의 이야기'는 '인사담당자의 정보'로 둔갑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모과 김과장이 또다른 모과 미스 정과 사귀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실은, 똑같이 엘리베이터 걸인 그녀의 동료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뒤에서 종알종알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냥 가슴속에 싸안고 있기에 그 양이 너무 많고 흥미진진했다. 어떻게든 자신들도 한번쯤 그대로 종알거리 머리와 가슴을 비워내야만 또 그 다음날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교대시간에 휴게실에 모인 그녀들은 자신이 '획득한'

새로운 '정보' 들을 교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엘리베이터 걸은 하필 너무 고지식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참여는 커녕 매우 염증을 느꼈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선'을 보기로 했다. 나에 대해, 나의 직장에 대해, 엘리베이터 안의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고르고 골라. 드디어 고모의 도움으로 선을 보기로 한 날. 그런데 반가운 척 인사를 하고 막 자리에 앉자마자, 멀썩하게 생긴 그 남자가 먼저 말문을 여는 게 아닌가. "아, ○○그룹에 다니신다면서요? 아마 조만간 그 회사 발각 한번 뒤집힐 겁니다. 제가 미리 귀띔해드리는 건데요, 외국에서 유학하던 회장의 둘째아들이 이번 달 귀국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나 봐요. 아마 장남과 셋째아들에게 줄 썩던 사람들, 혼쭐 좀 날 걸요?"

살다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 가슴속에 말이 차고 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순간.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뉴스'를 얻게 된단든지, 혹은 없었으면 더 좋을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단든지.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된다. 말을 해야 하므로, 흥미진진한 남의 이야기가 재미없는 생활 속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황당함을 반으로 나누어 짊어지는 지혜로움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속된 말로 '뒷담화'가 되는 경우다. 나의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러니 '말많은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그런데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생활에서, 이를테면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물리는 경우라면... '참을 인(因)자 세 개면 살인도 막는다'는 경우만으론 도무지 '열린 뚜껑'이 닫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 그렇다고 내 상관에게, 내 동료에게, 내가 무조건 사정하고 부탁해야 하는 '강자' (이를테면 인터뷰를 부탁해야 하는 상대)에게 대놓고 성질대로 퍼부을 수도 없는 노릇. 그럴 때 무조건 입다물고 참으라고만 하는 건 '스트레스 쌓여 죽어버려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은 아닐까.

스트레스 많은 직업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직업, '방송쟁이'. 오늘도 그들은 눈 많고 귀 많은 사무실을 피해 건물 구석구석에 등지를 틀고 열심히 수다를 떠다. 그저 살기 위해, 스트레스로 인해 죽지 않기 위해. 그 수다로 인해 누구도 상처입고 피해입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면서.

(위 엘리베이터 걸의 이야기는, 내 기억이 맞다면, 약 10여년 전쯤 모 신문 신춘문에 어디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



홀랜드-알카마(Alkmaar)의 치즈마켓

글·사진 사진작가 김 석 종

알카마 치즈마켓의 기원은 멀리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622년 개장한 치즈마켓은 세계 최대의 낙농제품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해 왔으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그 명맥을 지켜왔다.

홀랜드(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킬로 떨어진 알카마(Alkmaar) 시에서는 여름이면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 끌러풀한 치즈시장이 열린다. 우리나라 시골 분교의 운동장만한 웨그플레인(Waggplein) 광장에 들어서면 관광객 인파들과 시장을 구별하는 바리케이드가 둘러쳐 있고 바리케이드 안의 사각 공간에서는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 노란색의 치즈들과 밀집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은 치즈 캐리어(Cheese Carrier)들이 2인 1조가 되어 고성을 지르며 들것에 치즈를 싣고 광장을 부지런히 누비는 모습이 보일 뿐 치즈를 사는 사람은 눈에 띄질 않는다. 내용을 알고 보면 홀랜드 북부지역에서 알카마시에 집결된 치즈도매가 끝난 후 치즈무게를 달고 거래된 치즈양을 확인하는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쇼형식의 상징적인 마켓인 것이다.

전통을 이어가는 치즈마켓

거래되는 치즈는 형태상 둥글고 납작한 12킬로그램의 대형치즈와 공모양의 색이 짙은 1.8킬로그램의 작은 치즈로 딱 두 종류. 그러나 이 치즈들은 산지에 따라 산지 이름을 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면 큰 치즈들은 네덜란드의 고다(Gouda), 마스담(Maasdam), 리담(Leerdam)과 같은 치즈 생산지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작고 공모양의 치즈는 에담(Edam)치즈로 알려져 있다. 알카마 치즈마켓의 기원은 멀리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622년 개장한 치즈마켓은 세계 최대의 낙농제품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해



대대로 치즈캐리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자(父子)

왔으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그 명맥을 지켜왔다. 알카마의 치즈마켓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지역의 전통 치즈마켓이 현대식 유통마켓으로 바뀌어 버린 1939년 이후에도 전통마켓의 상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부 홀랜드의 대표적인 치즈 박물관이 알카마시에 위치해 있는 점이 자연스럽다. 치즈박물관은 치즈광장(Waagplein Square) 끝에 위치한 치즈무게 측정소인 옛 교회 건물 안에 위치해 있다.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치즈마켓 광장에서 펼쳐지는 상징적인 치즈마켓은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풍취가 담긴 훈훈한 정감을 안겨준다. 먼저 백, 청, 홍, 황, 녹 등 몇 가지 대표적인 원색들이 여름의 양광에 눈부시게 움적이는 것도 그렇고(치즈를 나르는 치즈 케리어들이 들고 있는 들것과 모자의 색깔들, 그리고 노란색의 치즈는 깨끗하고 담백한 기억을 남겨준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치즈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지탱하는 가죽끈으로 들것에 매달아 함께 들어 나른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기름냄새를 풍기며 요란스런 굉음과 함께 기계를 이용해 치즈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선반들을 땀 한 방울 이마에 맺히지 않은 채 혼자서도 통제로 들어 올리는 현대의 일반 방법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가?

2인이 1조로 나르는 무게는 만만치 않다. 보통 들것 하나에 12킬로짜리 고다 치즈 8개를 싣는다. 들것 무게 25킬로를 더하면 두 사람이 한번에 121킬로그램을 나르는 셈이다. 1인당 한번에 60킬로그램의 짐을 어깨에 지는 셈인데 보통 2시간 동안 30명의 치즈 케리어(이하 짐꾼이라 지칭)들이 들어 나르는 치즈무게는 약 6만 킬로그램임을 계산해 볼 때 짐꾼당 한 시간에 1천 킬로그램의 치즈를 실어 날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 들것의 무게는 별도이므로 실지로 나른 무게는 쉽게 1천 킬로그램을 넘는다. 이 같이 짧은 시간에 무거운 짐을 실수 없

이 나르기 위해선 체력도 좋아야 하지만 나르는 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무게를 최대한 단시간 안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팔을 뒤로 빠르게 휘저으며 종종 걸음을 치는 독특한 걸음걸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르는 두 사람의 호흡이다. 호흡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힘만 들고 광장 돌바닥에 치즈를 내동댕이 치기 일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나 짐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부터 홀랜드에서는 짐꾼들이 조합을 결성, 엄격한 심사를 거친 새 짐꾼들을 강훈련시켜 왔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짐꾼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모든 운반과 무게측정이 기계화된 지금에 있어서는 민족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문화보존 자긍심마저 가미되어 짐꾼들의 표정은 능글하고 자랑스럽게 보인다.

홀랜드 낙농산업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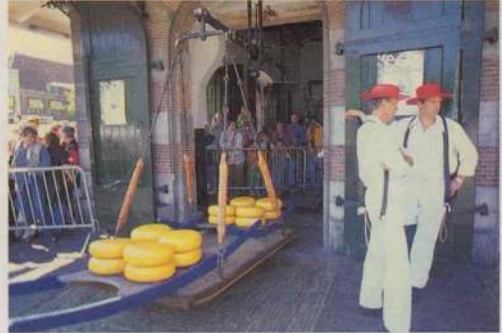
알카마시에 소속된 짐꾼들의 수는 모두 31명. 극히 적은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고는 있지만 거의 모두가 자기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지만 모자와 들것의 색깔은 청, 적, 황, 녹색 등 모두 4가지다. 모자와 들것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치즈시장이 끝난 후 각처에서 동원된 짐꾼들의 숫자와 임금을 계산할 때 편리하게 분류하기 위한 전통이다. 짐꾼들의 대표격인 치즈 아버지(Cheese Father)만 유일하게 오랜

치즈박물관에서는 네덜란드 치즈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웨그플레인 광장에 준비하게 진열되어 있는 치즈들



치즈는 무게측정소에서 측정을 거친 후에야 시장에 나간다.

홀랜드 치즈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자국 국적의 이름으로 둔갑한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홀랜드의 치즈가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규모 치즈 제조회사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과 치즈농장 단위로 저마다의 소규모 치즈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농장에서는 저마다의 독특한 방법으로 치즈를 제작, 고유한 상표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지색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권위를 상징하는 배지와 지팡이를 들고 치즈이동과 무게측정을 총지휘한다. 현재 알카마 치즈마켓의 치즈 아버지는 Jan Van Staten씨로 지난 24년 동안 치즈 아버지로 봉사해 왔으며, 그 이전 7년 동안은 장안에서 날리던 짐꾼이었다. 알카마시 짐꾼 조합원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기도 하는데 Kees Company(아버지, 53세)와 Ed Company(아들, 29세)가 그 경우이다. 이들은 때로 한조가 되어 치즈를 나르는데 이들이 같이 나타나면 연도의 시민들은 격려의 환호성을 지른다.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가 확실하다면 거리낄 게 없는 홀랜드인들의 민족성이 표출되는 대목이다.

세계 최대의 치즈 생산국이며 수출국인 홀랜드는 작년 한 해 모두 2억 4천만 킬로그램의 치즈를 수출했으며 이는 국내 생산량의 2/3를 차지한다. 치즈를 전락 수출상품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다. 프랑스인들이 자기네 치즈인 양 오해할 정도로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미몰렛(Mimolette)치즈는 실상 당근즙으로 자연색을 한 홀랜드의 전통치즈인 코미시(Cornissie)

다. 이 같이 홀랜드 치즈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자국 국적의 이름으로 둔갑한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홀랜드의 치즈가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규모 치즈 제조회사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과 치즈농장 단위로 저마다의 소규모 치즈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농장에서는 저마다의 독특한 방법으로 치즈를 제작, 고유한 상표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이 품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홀랜드 치즈의 세계수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홀랜드인들은 같은 종류의 치즈를 만들고 나서 1달에서부터 보통 1년까지, 혹은 1년 이상의 보관 숙성도에 따라 모두 6개의 치즈로 분류시켜 먹는다. 숙성도가 높을수록 딱딱해 지지고 강한 맛을 지닌다. 치즈마켓의 홍보 책임자인 Steven Van Os는 '치즈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치즈를 찾는다'며 귀뜸을 한다. 알카마의 치즈마켓은 실상 홀랜드의 실제적인 치즈 현물시장은 아니지만 홀랜드의 낙농산업을 상징하는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살아있는 그릇, 옹기의 비밀

공군본부 환경과

옹기장이라는 말이 있다. 옹기를 만드는 장인이란 뜻이다. 옹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옹기에 담아두면 수돗물도 생수가 되고 장을 담아두면 장이 변치 않고 잘 발효된다. 김장을 하면 땅속에 묻어둔 옹기에 담아서 보관하여 한겨울을 나게 하였다.

오늘날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심지어 바이오 김치독, 김치 냉장고까지 등장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의 그릇인 옹기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 옹기가 간장·고추장·김치 등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아파트 거실 한쪽 구석에 말린 꽃을 담아두는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생명의 그릇'이라 불리던 옹기가 죽은 그릇으로 바뀐 현상이다.

옹기가 이렇게 된 데는 변명도 많다. 다루기 힘들다, 쉽게 깨진다,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저마다 둘러댈 수 있는 핑계를 대어가며 우리네 황토흙을 몸에 담은 옹기를 구석진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치솟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은 보약을 먹고 정수기를 사서 물을 걸러 먹는 등 요란을 떠난다. 애써 다른 비상구를 찾으면서 자연에서 나온 옹기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그릇'이라는 것은 왜 모르는 것일까.

흔히 옹기를 '숨쉬는 그릇'이라고 한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옹기의 효용을 알게 되면서 '신비한 동양의 그릇'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옹기를 빚는 흙인 태토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수없이 섞여 있다. 유약도 부엌토의 일종인 약토와 재로 만들기 때문에 가마 안에서



고열로 구워지는 동안 그릇 표면에 미세한 숨구멍이 생긴다.

햇볕이 뜨거운 여름철에 장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얗게 소금기가 서려있거나 끈적끈적한 액질이 밖으로 뿜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옹기가 숨구멍을 통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옹기가 숨을 쉬지 못하면 안에 담가둔 김치나 된장 등이 썩어버린다. 숨쉬기가 잘 안되는 옹기는 내용물을 썩게 하지만, 숨쉬기가 잘되는 옹기는 내용물을 적당히 삭이는 발효그릇이 된다.

옹기는 마치 생명체와 같다. 제 몸 속에 습기가 있으면 숨을 내쉬어 그것을 밖으로 뿜어내고, 제 몸 속이 건조해 습기가 부족하면 숨을 들이마셔 습기를 조절할 줄 안다.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네 그릇인 것이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아침저녁으로 항아리를 닦아주었던 것도 항아리가 계속 호흡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옹기에 부어놓고 썼던 것도 깨끗한 물, 숨쉬는 물을 마시려는 우리 조상들의 환경 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 ☺

집중호우가 많은 8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8월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짜는 듯한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무더위에 지쳐 시원한 바닷바람을 그리워하는 반면, 한여름의 산과 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질푸름의 절정기에 달하게 된다.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대로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평균기온은 22℃~30℃로 연중 가장 높다. 초순과 중순 사이에는 연중 최고기온이 나타난다. 특히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현상을 열대야(熱帶夜)라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8월 동안 평균 3일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에는 무더운 밤이 계속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대기가 불안정해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며, 강수량도 평균 260mm로 연중 가장 많다.

집중호우는 지난 30년 동안 총 245일 발생하였는데, 그 중 약 43%인 105일이 8월에 발생하여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였다. 8월은 또한 태풍이 가장 많이 내습하는 달이기도 하다. 30년 간 93회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약 33%인 31회가 8월에 집중되었다. 8월은 무더우면서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달이므로, 철저한 사전대비로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기로는 귀뚜라미가 울며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가 8일이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處暑)가 23일이다. 또한 사랑에 빠져 옷감짜기를 소홀히 한 직녀와 소치기를 게을리한 견우가 별로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칠월칠석(七月七夕)이 15일이다. 이 날이 되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부인들은 가족의 무병장수와 가정의 평안을 빌고, 처녀들은 견우와 직녀성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잘 하게 해 달라고 비는 풍속이 있었다.

8월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무더위로 심신이 피곤해지기 쉬운 때이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더위를 피하며 산과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열대야, 집중호우, 높은 불쾌지수 등으로 인해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무척 힘든 달이지만, 서로 양보하고 돕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풍요로운 결실(結實)의 9월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여름 휴가, 건강하게 보내세요

제3방공포병여단 대위 홍 승 권

여름 휴가가 절정에 달하는 요즘, 휴가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마련이다. 환자가 물을

많이 먹어 배가 불룩하게 되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눌러 물을 빼게 되면 기도도 유입되어 오히려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의 물을 빼려면 환자를 좌측이 아래로 가게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배를 지그시 눌러주어야 한다. 환자가 물을 많이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 호흡을 방해하지 않는 한 물을 뱉 필요는 없다.

다이빙을 할 때는 척추손상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경추손상이 동반되기 쉬우며, 사고시 수면으로 얼굴을 내밀기 위하여 환자의 체위를 변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두부와 상반신을 동시에 돌려 척추를 보호해야 한다. 머리만 돌리면 경추손상이 더욱 악화된다. 얼굴을 수면 위로 위치시킨 후에 구강 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그리고 경추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몸체 밑에 척추고정판이나 나무판자를 위치시키며, 척추고정판 위에서 심장마사지를 하거나 척추가 고정된 상태로 병원이송을 하여야 한다.

일사병은 무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발생하며 수분과 전해질 소실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증상으로는 무력감, 현기증, 두통, 몽롱함, 식욕부진과 함께 얼굴이 창백해지



고 피부는 차갑고 축축해지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한다. 이 때 더운 환경에서 그늘지고 선선한 장소로 이동하여, 의복을 제거하거나 꼭 끼는 의복은 느슨하게 한다. 의식이 있으면 입으로 1리터의 수분이나 전해질 용액을 투여한다.

벌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의 근위부에 압박대를 위치시키고, 폭이 넓은 헝겊이나 끈(폭 2cm 이상)으로 피가 통할 정도로 묶는다. 피부에 독침이나 독주머니가 남아있다면 제거한다. 침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약 20분 정도 후까지도 독소가 퍼질 수 있다. 침을 제거할 때 집게나 핀셋을 사용하면 침을 찌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에게 더 많은 독물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독된 칼의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손상부위를 긁어 침을 제거한다. 물린 자리에 얼음주머니를 대면, 통증감소와 부종감소 및 독소의 흡수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물린 부위를 고정시킨 채 병원으로 이송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진 법·제도

공공본부 법무감실

제조물책임제도의 시행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결합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의 배상책임 ▶제조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공급자도 책임부담 ▶피해자측이 제조자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며, 기존에 제조물책임을 묻는 경우 소송에서 가장 큰 장애였던 피해자측 입증책임이 이 법에서는 면제되고, 제조자가 면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급발진 등 제조물의 결합이 명백히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과실의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민사소송법 및 제정 민사집행법 시행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채권자를 위한 신속하고도 효과적 권리구제와 낙찰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제제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 증인이 1회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 ▶재산명시의무 강화(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금융기관 통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 제도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 개선 ▶미등기건물의 집행(미등기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

주택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범위 제한

임대인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는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을 연 1할 4푼으로 정하였다.

경매 부동산 인터넷검색서비스 개시

11월경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경매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 소재지별·부동산용도별·가격대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사진 등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립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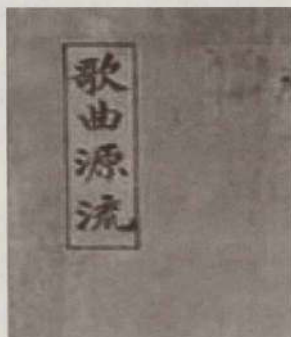
남상덕(南相憲)

1881년 의령 출생. 일찍이 군부(軍部) 시위대 보병(侍衛隊 步兵) 제2연대 제1대대에 입대하여 견습보병 참위(參尉)가 되었다.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군부대신 이병무가 일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서 군대해산을 명하자 참령(參寧) 박승환이 순국하였다. 남상덕은 비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하 천여명을 이끌고 일본군과 대치, 이를 동안 일본군 대장을 포함한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으나 아군 역시 병졸 98명, 장교 7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대장이 죽은 일본군은 후원부대를 증파하였으나 남상덕이 이끄는 부대는 탄환이 바닥난 상태였다. 부대를 독려하던 남상덕은 결국 적탄에 맞아 순국하였고 나머지 군인들은 해산당했다. 이들은 후에 정미의병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문화인물

박효관(朴孝寬)

조선말 고종 때의 가객(歌客)(1800~1880). 자는 경화(景華), 호는 운애(雲崖). 가곡의 명인 장우벽에게 사사 후 대성했다. 1876년(고종 13)에 그의 제자인 안민영과 함께 가론(歌論)을 확립했으며, 『가곡원류』를 편찬하여 당시까지의 가곡을 총정리했다. 특히 가사를 가곡의 곡조순으로 나누고 가사 옆에 고저(高低), 흐르는 표, 접속표 등 여러 가지 부호로 된 연음표(連音標)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 13수가 『가곡원류』에 전한다. 가법은 안민영을 거쳐 하준권, 최수보, 명완벽, 하규일에게 전승되었고, 하규일의 지도로 이병성, 이주환에게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곡원류』는 『청구영언』, 『해동가요』와 함께 3대가집으로 꼽힌다.



호국인물

장철부(張哲夫) 육군중령

1950년 6월 29일 훈성2사단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장 장철부 소령은 한강 방어전시 과천에서 한강을 도하하던 적 1개 소대를 수장시키는 전공을 올렸다. 이후 7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공주 남방에서 북한군 제12사단에 포위된 미군 제24사단 3대대와 63포병대대를 구출한 장소령은 청송지구로 남하하는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비봉산지구 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된 장소령은 복부와 팔에 관통상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하들을 지휘하여 결전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사후 중령으로 추서되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찾아라!

- 공군 사이버 리더십 센터 개설 -

공군대학 공군 사이버 리더십 센터

삶에 대해 예술적이고 감상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심미안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사색적이다.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내적인 요구를 잘 이해한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자기 억제적이고 자신에게 화를 낸다. 침울해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감정적인 마비감을 느낀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출하려고 하며,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유지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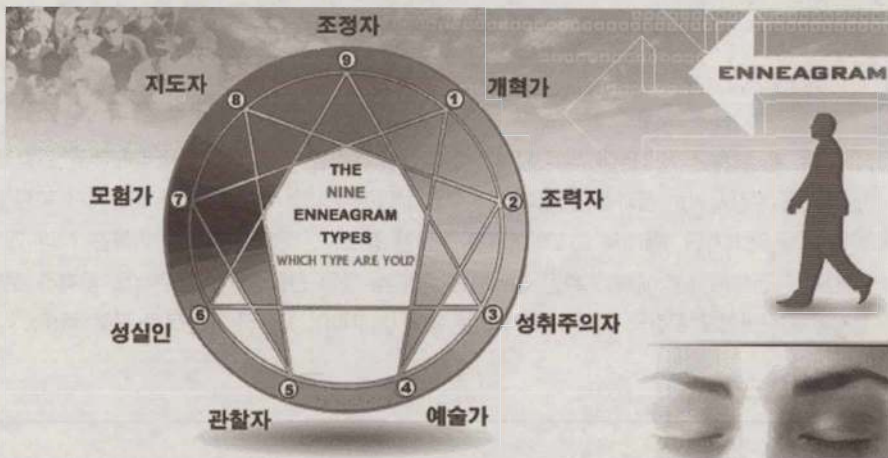
제레미 아이언스, 애드가 앨런 포우, 프린스, 마이클 잭슨, 버지니아 울프... 헉! 내가 마이클 잭슨? 버지니아 울프라고!

이상은 공군에서 3군 처음으로 오픈한 '사이버 리더십 센터'를 통한 성격유형검사 결과의 일부이다.

사이버 리더십 센터는 공군인으로서 개인 및 집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 연구·교육·자문을 수행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신뢰·추진력을 겸비한 전략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이번에 개설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운용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 사용자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도모한 사이버 리더십 센터는 ▶성격유형검사 ▶리더십유형검사 ▶리더십 동영상 교육강좌 ▶리더십 자료실 ▶토론펙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한다

공군대학 연구부에 자리를 잡고 연구를 시작한 연구위원들은 1년여 연구 끝에 공군 리더십



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리더십 모델을 다시 6개월 동안 전산화 작업을 하여 사이버 리더십 센터 홈페이지를 완성시키게 되었다.

작년 말에 개발된 공군 리더십 모델(Air Force Leadership Development Inventory)을 토대로 한 성격유형검사 및 리더십유형검사는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을 2차원 그래프와 망형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검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장병 개개인이 건전한 방향으로 자기혁신을 하고 개인의 부족한 리더십 부분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시해줌으로써 리더십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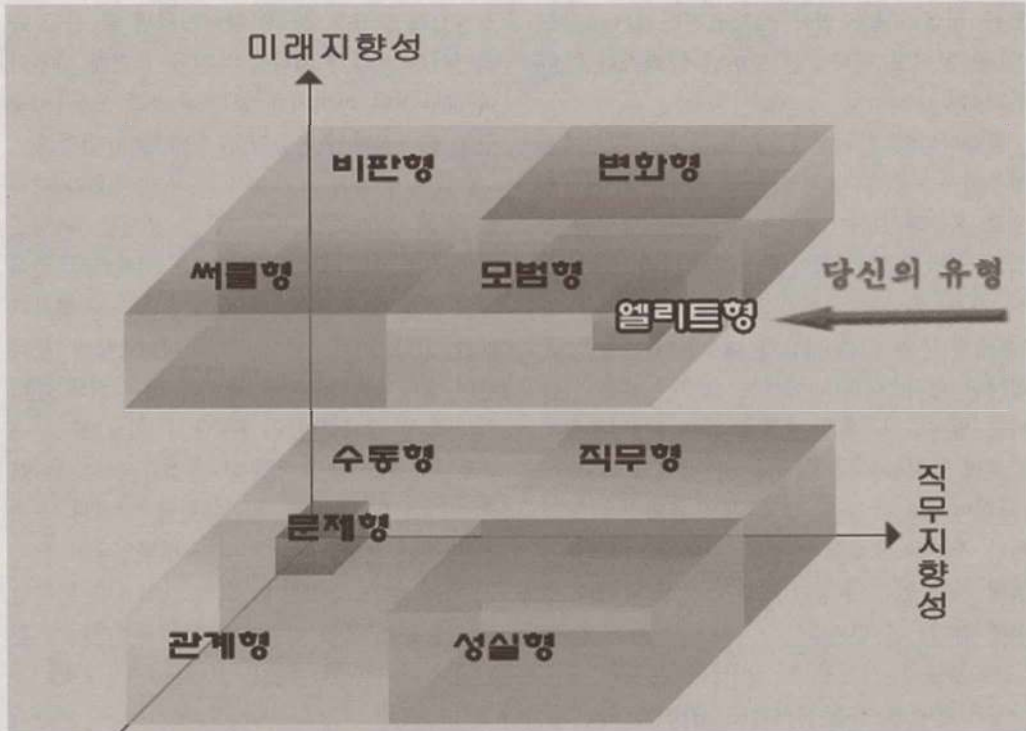
공군이 바라는 진정한 리더십

이번에 인트라넷에 개설된 사이버 리더십 센터를 통해 공군장병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자신의 성격유형과 리더십유형을 스스로 진단하여 조직과 자신의 발

사이버 리더십 센터는 공군인으로서 개인 및 집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 연구·교육·자문을 수행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신뢰·추진력을 겸비한 전략적 리더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파악·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그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조직보다 중요한 군에서 간부들로 하여금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21세기 군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간부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충원에서의 추억

방공포병사령부 준위 김철수



차를 거쳐 1997년에야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국립 현충원의 수많은 묘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당신의 남편을 애타게 찾으셨던 할머니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시고 할

햇살이 몹시도 따가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한 번도 뵈지 못했던 할아버님의 흔적을 찾아 전국의 이름모를 묘를 찾아 다녔던 오래 전 여름날의 기억들이 머리를 맴돈다. 그리고 그토록 할아버님을 찾아 애태웠건만 끝내 결실을 못 보시고 떠나가신 할머니께 죄스러울 따름이다.

할아버님이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횡성에서 전투임무수행 중 총격을 받고 미 8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은 미로처럼 펼쳐진 숙제의 시작이었다. 할아버님이 어디에 살아 계신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건지... 할머니는 긴 세월 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 어린 나에게도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푸른 제복을 입게 된 이후에도 가끔씩 할머니의 슬픈 눈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하는 책임감을 들었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풀이 거칠게 자라 있는 무명의 묘들을 보실 때마다 수심에 잠기시곤 했다.

1983년부터 시작된 할아버님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40회에 걸친 문서발송, 접수 및 확인 절

아버님을 찾아 떠나셨다. 지금도 당시 할아버님을 찾기 위해 주고 받았던 두꺼운 문서철을 뒤적이다 보면, 그때 애타하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97년 햇살이 따갑던 6월, 정성스레 성묘를 한 후 할아버님께 술 한잔 올리면서 반세기가 지나서야 절을 올리게 되었다며 눈물짓던 아버지를 보면서 가족 모두는 숙연한 분위기에 한참동안 묵상에 잠겨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국립묘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스러져간 이름 없는 용사들. 아직도 가족들이 찾지 못해 무성한 풀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을 호국영령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일상에 묻혀 바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몸바친 분들을 잠시나마 기억해낼 수 있을까?

국가적 대행사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지금, 경기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아 놓은 선배장병, 그리고 서해에서 군인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해군장병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도록 하자.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 ~ 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3 2 0 - 9 1 3

공군은
을 사랑하는
에 의해
어지고 있습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은
사랑하는
의해
지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장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
상품을 드립니다.

주중엔 항공기 정비, 주말엔 탁구 봉사

- 제3훈련비행단 강호길 하사 -

제3훈련비행단 소위 강민정



시원하게 뻗은 활주로에 흰색 라인. 녹색의 사각 테이블에 상쾌하게 튀는 하얀 탁구공. 제3훈련비행단 야전정비대대 강호길 하사. 그는 1년 전부터 주말을 이용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탁구봉사를 해오고 있다.

그가 탁구 라켓을 들고 찾아가는 곳은 연화산 옥천사 청연암(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승욱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보리수 쉼터'. 승욱 스님은 지난 '98년부터 폐교였던 이 곳에서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오고 있다.

강하사가 '보리수 쉼터'의 문을 들어서면 아이들은 친형을 대하듯 반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 탁구선수를 꿈꾸는 성민이(영천중 2학년)는 강하사와 탁구연습하는 시간을 너무도 좋아한다.

강하사가 '보리수 쉼터'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집 근처에 있어 친구와 종종 놀러 가던 옥천사의 승욱 스님을 통해서이다. 스님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스님의 일손을 거들어 주던 중, 강하사는

공군 부사관에 지원, 1999년에 하사로 임관했다. 처음 배속된 3훈비 야전정비대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강하사는 '칭찬합시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전부터 알고 있던 '보리수 쉼터'에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영내하사였기에 매월 약간의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영내하사 생활이 끝나자 그는 맨 먼저 '보리수 쉼터'를 찾아갔다.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기도 한 그 곳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아도 주다가 학교에서 탁구선수를 하고 있는 성민이를 만났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탁구선수 경험이 있던 강하사는 상대가 없어서 연습이 부족한 성민이의 연습상대가 되어주기로 하고 '보리수 쉼터'에 들를 때마다 성민이와 탁구를 치며, 자세도 봐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게 되었다고.

강하사는 "이 곳의 스님과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탁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게 즐겁다"며, "처음엔 제가 한 수 위였는데, 이젠 성민이가 더 잘합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탁구선수가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공군 최고의 정비사가 되어야죠"라며 밝게 웃었다. Ⓣ

F-15K 소개 홈페이지 개설

공군본부 전력계획처에서는 전략형 공군 건설의 초석이자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이 될 F-15K 전투기 사업에 대한 소개 홈페이지를 공군본부 인터넷 'SPECIAL INFORMATION'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F-15K 전투기 사업의 개요, 추진경과 이외에도 F-15K의 제원, 주요 탑재 장비/무장, 적용기술, 그림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의 : 효)2293



『研究』지 원고모집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체계분석실에서는 전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研究』지 제18호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 내용은 군사력 건설 및 전력 발전 등을 포함한 전분야이며 타지에 게재되지 않은 개인 연구논문으로 제한합니다.

원고마감은 9월 30일까지이며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문의 : 효)5924, e-mail : chungil@af.mil



작전사령부 역사기념실 자료수집

작전사령부에서는 핵심전력으로서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아가 21세기 미래 공군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역사기념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역 및 예비역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관련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증가능 품목은

- ▶상패류 : 표창장, 훈장, 기장, 상패, 배지
- ▶문서류 : 작전명령서, 출격명령서, 공군 주요작전 관련 일반문서, 신문, 비행 연구일지
- ▶복제류 : 마후라, 파병복제, 공군초기 조종복, 모자류
- ▶사진류 : 신문보도사진, 행사 관련 기념사진, 작사 창설 관련 보도자료
- ▶기념품 : 개인 수집품, 코인, 기념패, 앨범
- ▶기타 : KNEE-BOARD, CHECK LIST, 모형항공기 등이며 기증자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전화나 E-Mail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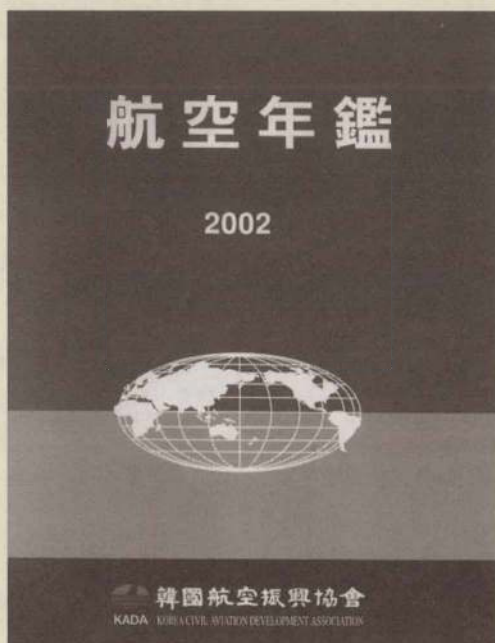
문의 : 031)669-5020, 칠)5020, 인터넷 : chanyeop@af.mil,

인터넷 : chanyeop@dreamwiz.com

〈항공연감 2002〉 발간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는 항공관련 제반자료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항공연감 2002〉를 발간·판매하고 있다. 〈항공연감 2002〉에는 항공역사, 항공정책, 수송현황, 항공운송산업, 항공우주산업, 항공스포츠·레저, 국내외 항공관련 기구 및 단체, 외국의 공항, 항공사, 항공산업 관련 제조업체 등 각종 항공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4×6배판/950쪽/90,000원. 문의 : 02)662-6272



美 항공사들 Universal ID Card 개발 박차

미 항공사들이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항공안전대책 일환으로 일명 Smart card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Biometrics를 이용, 카드 내에 소유자의 안구 또는 엄지손가락 지문 등을 수록하게 될 이 카드는 미 조종사협회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개발비용은 개당 약 1.67달러가 예상된다. 우선 사용대상자는 비행승무원, 항공사직원, 공항근무직원, 보안당국 관계자들이며 항공사들은 최종 사용대상을 승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항 및 항공기내 분실물 연락처 안내

-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공용지역 및 주차장지역에서 발생된 유실물
 - 인천공항공사 유실물 관리소 : 032)741-3110
- ▶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 지역 내에서 분실된 물품 중 술, 담배, 향수 등 고가 면세품
 - 인천공항 세관 습득계 : 032)740-3210
- ▶ 김포공항 분실물
 - 김포공항 경찰대 수사계 : 02)660-4097

보잉사 무인전투기 X-45 공개

보잉사는 지난 달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전투용으로 특별 제작된 무인전투기 X-45를 공개했다. 지난 5월 처녀비행에 성공한 이 전투기는 보잉사가 미 공군 및 국방부 첨단방어연구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것이다. 양날개를 합친 기체폭은 10.8m이며 조종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대신 엔진흡입구가 있다. 기체무게는 3,600kg이며 총 1,350kg의 유도폭탄 적재능력이 있다.



이달의 문제

지난호 정답/세이브

	1 ②		2 ④	3	4					5 ③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21	22							23	24
				25	26				27	

시	멘	트		삼	배		유
나		리			니		유
③		오	나	시	스		상
로	마		②				방 종
			이				
	천		테	러			앗
	루	광				이	간 절
부		①	도	정	치		소
		세					
채	림		루		로	비	

▶ 가로열쇠

- 이곳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www.mnd.go.kr
- 표고가 높고 찬 지방에서 행해지는 농업. ○○○농업
- 최불암이 '반장'으로 나왔던 드라마
- 화(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혹은 공중전화 끊었다니 동전이 나오더라(?).
-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
- 지구본을 다른 말로 하면?
- 군대간 남자를 차버리면 여자가 이것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지요. 과연 가능할까?
-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감독. 오리궁둥이
- 놀이터에 있죠. 혼자서는 못 놀아요. 널뛰기가 아닙니다.
- '제 눈에 물대기'라는 한자성어
- 훈련에 야근까지 하면 설상가상(雪上加霜). 휴가에 특박까지 붙으면?
- 혈액형을 가리지 않는다. 천적은 에프킬라
- 남자가 여자를 배려할 때 이 정신을 발휘한다고 하지요.
- 밀림의 왕. 호랑이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

▶ 세로열쇠

- 장마는 온난전선과 이것이 만나 발생합니다.
- 물이 새어 들지 않도록 방수포로 만든 옷
- 품사의 하나. 용언 또는 다른 부사 앞에서 그 뜻을 한정합니다.
- 우리나라는 자유○○○○ 국가
- 곡조를 맞추어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는 소리. '아싸~ ○○○, 좋다~'
- 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 기능의 일부를 지니는 중소도시
- 자신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 전유성 흉내내기가 가장 쉬죠. '안녕하세요, 전유성입니다.'
- 달면 설탕, 짜면?
- 손바닥 비비기
-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지요.
- 고구려인들이 주로 그렸던 벽화. 사냥하는 모습을 담고 있지요.
- 밥+고추장(된장)+상추
- 출입처에 마련된 취재기자들의 대기실
-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대회에서 처음에는 16강이 목표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까지 해냈습니다.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충북 청원 내수 은곡리 덕일 한마음A 102-401 송영현
 전남 무안군 조흥은행목포대 출장소 광명훈
 부산시 남구 대연동 제8991부대 정비대 병장 박성진
 대구시 동구 검사동 사서함 304-306 대위 김진곤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13 보급대대 병장 이의경

① ② ③ ④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8월 17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조선목가구대전 - 나뭇결에 스민 지혜

〈조선목가구대전-나뭇결에 스민 지혜〉는 조선시대 후기,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한 특성들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통 목가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옛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숨결과 늘 함께 하여,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미감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미술품 중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간 잊혀졌던 전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 조상들의 드높은 안목과 생활 속의 지혜를 읽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호암 갤러리. 9월 1일까지.



문의 : 02)771-2381

뮤지컬 FOOTLOOSE

뮤지컬 〈풋루스〉는 1984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동명의 영화와는 다른 뮤지컬이다. 영화 〈타이타닉〉과 〈왕과 나〉의 제작자들이 새로이 브로드웨이에 올린 뮤지컬 〈풋루스〉는 렌 매코믹이라는 10대 소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매코믹은 춤을 금지시키려는 목사에게 젊음이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영화 〈풋루스〉는 사운드트랙이 대단한 호응을 얻었는데 빌보드차트에서 6주간 정상을 차지했다. 바로 그 노래들을 비롯해 뮤지컬을 위해 새로 추가된 곡들이 무대에서 흘러나온다. 연강홀. 9월 29일까지.



문의 : 02)7085-0018

신데렐라 - 성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 공연

러시아의 발레예술과 아이스스케이팅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전 세계인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 온 성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마린스키 극장의 키로프 발레단과 자매격으로 러시아 발레의 뛰어난 예술성과 우아하고 격정적인 피겨스케이팅을 은반 위에 수놓는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동화 '신데렐라'를 선보임으로써 예술성과 오락성을 갖춘 한여름밤의 꿈을 선사할 것이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문의 : 02)548-4480

『중국 근·현대 오대가(五大家) 회화 작품』展

국립현대미술관은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근·현대 오대가(五大家) 회화 작품』展을 중국의 요령성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 근·현대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임백년, 오창석, 황빈홍, 제백석, 서비홍 5대가의 대표작품인 사녀도, 송매도, 분마도 등 중국의 문화재급 회화작품 60점이 전시된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분관. 9월 1일까지.



문의 : 02)779-5310



ROK A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대한민국 공군의
THE PURPOSE OF THE ROK AIR FORCE

국기수호의 핵심지력으로서
AS THE CORE FIGHTING FORCE

정예 편성을
ROK AF

정확 타격을
ROK AF

정밀 작전을
ROK AF

정신 단련을
ROK AF

정기 훈련을
ROK AF

정신 단련을
ROK AF

정신 단련을
ROK AF

정신 단련을
ROK AF